

2015년 제6호

高城文化

고성문화원



발간사

이진영 (고성문화원장) 1

축간사

윤승근 (고성군수) 3

축사

김형실 (고성군의회 의장) 5

특별기고

고성의 숲이 고성 희망이고 고성의 미래입니다.(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 7

기획특집

태백준령 끝자락 陳富嶺 美術館 田錫津 館長을 찾아서 (취재/ 최선호) 14



향토사조명

공양왕의 '간성릉'(杆城陵)에 대한 小考 (함영선 고성문화원 향토사반)	20
四溟大師가 의승병을 창제한 金剛山 乾鳳寺(금강산 건봉사) (資料 高城文化院) ...	36
간성향교 근현대 고찰(考察) (박유조 간성향교 장의)	44
우리 방언에 대한 소고(小考) (이선국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49

핫 이슈

잘 보전된 문화재, 역사가 바로 선다. (남궁 규 고성소방서장)	57
고향 주민들이 잘 사는 길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	65

근 현대 인물

건봉사와 만해의 여인 서여연화 보살 (권성준 설악고등학교 교장)	71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에 간성의 인물 (한창영 고성신평 이사장)	79

명소순례

화암사(禾巖寺) 숲길을 걷다 (최선호 고성문화원 향토사로 연구위원)	88
---	----



설화 전설

까치봉 곰 화진포에서 숨겨 (신현필 전, 공무원) 94

오피니언 칼럼

東洋思想과 杆城郡 (어재동 한문학) 101

미소(微笑) (김정규 전, 40대대장) 110

빛 바랜 사진들

그때 그 시절(2컷) 114

향토문단

고성 명태 축제의 꿈/떠나간 명태 다시 회귀하려나 (최인철 시인) 116

천하에는 다섯가지 악이있다. (류경렬 전, 초등학교 교장) 120

연어의 꿈 (황연옥 고성문화회장, 시인) 128

함께 사는 나무 (김춘만 시인) 133

어머님과 나눈 얘기 (최인철 시인) 136



원한의 휴전선 (최형윤 고성문화회원)	138
고향(故鄕)가는 길 (전경배 시인)	140

향토작가 지상 갤러리

서예 (한글, 한문)	142
한국화	147
사군자	151
유화	153
사진	156
각자(刻字)	161

고성문화원 소개

고성문화원 연혁	165
고성문화원 임원명단	167

회원가입

고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169
----------------------	-----



발 간 사



고성문화원장
이 진 영

高城文化(고성문화)지는 지난 2005년도에 창간호를 시초로 발간한 이래 격년제로 금년도 6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도 고성문화원 설립이후 선배님들의 고귀한 애향심과 땀흘린 노력으로 오늘의 향토지킴이로 우리 고성문화원이 우뚝 서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토문화”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의 시금석으로서 다양한 향토사료의 발굴 보전과 지역의 역사의 가치를 한층 고양 시키므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의 청정 지역으로서 산, 바다, 호수, 강이 모두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각광 받는 고장입니다.

금강산 건봉사의 천년고찰과, 화암사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 등 많은 중요 사찰들과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신라시대 화랑들의 순례지였으며, 사명대사가 건봉사에서 의승병을 일으켜 외적을 물리쳤던 역사적 인물들과 시문객들이 의승병 문화예술을 꽃피 우던 자랑스런 고장이였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문화원에서도 옛 향토사료 발굴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자 및 기타 간행물들을 발간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발전방안과 제언,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지원과 작품들을 기록 성문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의 문화융성과 건전한 삶의 활력이 되는 고성의 역사를 가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본지 발간을 위해 옥고를 보내주신 각계인사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윤승근 고성군수, 김형실 고성군의회 의장, 문화원회원 및 편집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고성군민들이 새희망과 기대하시는 모든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간 사



고 성 군 수
윤 승 근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전통문화를 기록 전승하는 「高城文化」 제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애쓰시는 고성문화원 이진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지역은 세계유일 분단 지자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계화하여 원형 그대로 후대에 전승하고 문화분야 핵심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으로 지방문화의 가치 척도이자 기반이 되며, 인류문화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원의 향토사료 수집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기록 및 자원발굴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와 향토사를 후세에 이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 및 군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 “고성어로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으며, 2016년에는 간성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사명대사 기적비 복원, 건봉사 극락전 복원 등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복원해 나가며 문화관광 지원화에 앞장서는 등 미래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高城文化」 제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과거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우리 군민의 향토 의식과 문화의식 향상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축 사



고성군의회 의장
김 형 실

우리지역 문화와 진솔한 삶을 펼쳐 보일 「고성문화」 제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민의 창조적 문화역량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삼으면서 문화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향토문화는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반영된 것으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성문화 발간은 향토문화를 지키고 보존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고성문화 제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고성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고성의 숲이 고성 희망이고 고성의
미래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장

이 경 일

강원도는 전국최대규모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국토면적 1,669,308ha중 산림면적이 1,368,571ha로 무려 82%를 차지한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산림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고성군을 포함한 동해안 6개 시·군과 영서 지역 4개 시·군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담당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전체 산림의 약 28%인 377,241ha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고성군 전체 면적은 66,023ha이며, 산림면적은 46,311ha로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동부지방산림

청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27,512ha로 고성군 전체 면적의 42%, 산림면적의 5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성군에서 산림청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이며, 고성군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군이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성군 특성에 맞는 산림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숲가꾸기, 조림 등 일반적인 산림사업 뿐 아니라 대북산림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2015년 이뤘던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북산림사업 및 남북 산림생태 연구·교육 등을 위한 거점 기반 구축

먼저 대북산림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 할 ‘고성민북경 영팀 청사’를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 이전했다. 30년이 훌쩍 넘은 과거 건물이 노후화 되어 폭설 및 폭우 등 재난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산불 및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진입로가 협소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과거 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넓은 터에 작은 건물 1체에 불과하지만 금강산관광, 대북사업 재개 시 건물과 인원을 늘려 대북산림사업 전진기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또 민북지역 일대 산림유전자원 등 산림생태에 대한 연구·교육·탐방을 위한 구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향로봉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했으며,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번지 외 19필지 13,607ha를 남북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전 및 유지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임야 6,069ha(구 18,358,725평)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지정해 국유림을 확대하였으며, '16년 관리청 미지정 국유림인 고성군 간성읍 탐현리 산5번지 외 75필지 약 170ha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지정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북한 산림복구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간성읍 장신리에 유치·조성

지난 2월 고성군과 파주시, 철원군 3개 지역이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조성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교통의 편리성, 관수 조건의 양호, 노동력 풍부, 분단 군의 특성 등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의 장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최대한 어필하여 조성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15년 약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계를 완료했으며 ’16년 기반공사, ’17년 건축 및 부대시설 조성 등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ha의 규모의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조성 할 예정이다. 연간 100만 본의 대북지원용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다.

셋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석을 위한 평화공원 조성

DMZ 설정 60주년을 맞아 동부전선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통일전망대 주변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4.2ha에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한 국민참여 행사를 추진했다. 지난 ’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 동부지방산림청·고성군·강원도민일보·지역주민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조성했다.

여기에 ’16~’18년 3년간 20ha에 약 6억 원을 투입해 평화공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16년에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17년은 망향의 숲과 통일의 숲을 조성하며, ’18년 체험의 숲을 조성하는 등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남북이산가족의 슬픔을 달래주는 등 국민을 위한 평화공원을 조성 할 계획이다.

넷째, 숲 체험공간을 확대하고, 산림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해 녹색체험공간인 유아숲 체험원을 고성산 일대에 조성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아이들이 숲 속 나무와 풀, 계곡 등 자연환경 속에서 숲을 체험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등 전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이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진중학교 등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산림을 접목하여 산림분야 직업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 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손을 많이 사용해 뇌가 더욱 발달 할 수 있도록 목공예 활동, 숲가꾸기 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림생태체험 및 관찰,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등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트레일을 장신유원지 주변의 국유림 임도를 활용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km 조성했으며, 고성군과 협의해 소동령 등산로에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과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다섯째,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동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역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강원도, 고성군 및 지역주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중단된 지 10년째인 알프스 스키장 재개장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했다.

전국체전, 선수권대회 등이 개최된 알프스 스키장의 역사성과 고산지대 산림자원을 활용해 과거의 명성과 함께 낙후된 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도약을 준비하는 청정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도 홀리 지역이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성군이 청정개발 지역의 선두주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6월 체결한 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으로 홀리 지역에 리조트 및 풍력발전소를 조속히 조성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숲가꾸기, 임도 및 사방댐시설 등 다양한 산림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 남부지역의 38만ha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100년 전통의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성민북경영팀’, ‘향로봉

산림생태관리센터’,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조성해 고성을 ‘산림 클러스트’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 고성지역의 빼어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으로 유명한 스위스 융프라우, 프랑스 몽블랑 등과 같이 산악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성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

과거의 고성과 달리 미래의 고성은 ‘산림 클러스트’, ‘산악관광’ 등 산림에서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와 오감 체험관광 등으로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선봉에 동부지방산림청이 있다.





태백준령 끝자락 陳富嶺 美術館 田錫津 館長을 찾아서



태백준령의 끝자락 향로봉 아래 진부령 정상(해발520m)에 자리잡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홀리 32-28에 진부령미술관이 있다.

우리나라 예선 동해안 최북단 제일 높은 곳에 있지 않나 생각 이든다. 15년전에 문을 연 진부령 미술관은 전석진(田錫津 80세)관장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곳이기도하다,.

진부령 미술관과 함께한 세월 만큼이나 백발의 거장은 오늘도 쉬임없이 그의 가슴속에는 젊은날의 열정이 식어 갈줄 모르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미술관을 찾아주는 고마움에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안내하고 스토리텔링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열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곳 진부령을 찾으려면 인제 용대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조금 올라가면 용대리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 보이며 고성군의 특산품인 명태덕장들이 도로 양옆으로 즐비하게 있으며 토속 음식점도 드문 드문 볼수가 있다.

약 10분정도 차량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부령 정상이 나오는데 왼쪽에 웅장한 진부령 미술관이 우뚝서서 찾아오는 이들을 반겨준다, 이곳은 북한과 대치하여 있는 군사지역이라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구 옛날 국내의 스키어들이 몰어들든 알프스 스키장 가는길, 향로봉으로 가는 군작전도로 동해안쪽 간성으로 가는길이 갈라져 있다.

베이지 색으로 단장한 멋지고 예술적 감각으로 지어진 진부령 미술관은 지난 1999년도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로 개관했다. 당시에 미술관을 개관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이 “진부령스튜디오”라 이름을 붙였더니 사진관으로 착각하고 아기 둘사진을 찍으려 왔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전관장이 전해주었다.

그후 2009년 11월에 건축이 이루어져 진부령미술관으로 새

롭게 단장을 했다. 그런데 어떤 세인들은 하필이면 왜 인적이 드문 높은지역에 무슨 미술관 이야며 비야냥 데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

예술이 좋고 아름다움의 경지에 빠지면 어딘들 못가겠으며, 그 마음이 전석진 관장의 소신이며, 예술에 대한 사랑의 집념이었다.

전 관장은 원래 고성의 진부령 토박이가 아니라 경기도 여주에서 살았다. 6.26전쟁 이전에 평양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으며 월남하여 서울대 미술대학을 나왔다.

고성의 진부령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85년도 경이다. 가족들과 함께 알프스스키장에 드나들다 진부령 정상의 맑은 공기와 산세에 점점 빠져들었고 전혀 때문지 않는 천혜의 진부령에 살고 싶은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는 진부령 정상에 작은 주택하나와 텃밭을 장만하고 아내와 한달에 두세번씩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내려와 별장처럼 지냈다.

그러던중 1997년 진부령 정상에 위치해 있던 간성읍 홀리출장소가 폐쇄되어 문을 닫자 곳바로 홀리출장소를 미술관으로 당시 1억5천여만원의 사비를 들여 드디어 꿈에 간직하고 있던 미술관을 고성군과 임대 형식으로 체결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진부령 미술관 전경〉



〈1층 전시실에 옛 영화배우들의 사진들〉

전관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찾아 오는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공간을 제공하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이곳은 46번도로 진부령길로서 여름에는 피서객, 겨울이면 스키장에 몰려드는 스키어 관광객, 새해에는 동해안의 일출을 맞는 관광객, 봄가을에는 아름다운 천혜의고성에 등산, 걷기 산악인들이 구름같이 찾아들었다.

전관장은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한다는 정답이 없다며 스스로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그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림에 집중시키라고 전했다.

그는 “돌아오지않는 해병“ 꼬마신랑 등을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대부 전석진 관장은 6.25전쟁 직후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가정애 승용차가 2대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랐다. 당

시에 선친은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으며, 국내에 명성이 있는 화가들과도 절친하게 지낼 정도로 문화예술적 안목이 남달랐다.

그런 가정환경의 덕으로 자연스레 전관장도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영화계에 몸을 담았다. 1958년 그가 영화계에서 처음 하던 일은 시나리오 대본 삽화 작업이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영화 마케팅, 홍보, 제작까지 비약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꼬마신랑”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마부” 등 당대인 1960~70년대를 주름잡던 대표영화 40여편을 제작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영화계의 대부이다.

이와같이 거작들이 당대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영화였으며 당시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전 관장은 국내 유명배우 문희, 가수 나훈아 등. 수많은 예술인들을 발굴하였으며 하는일 마다 그의 열정에 손대는 일 마다 순조롭게 승승장구 즐겁게 풀려나갔다.

진부령미술관은 현재 1~2층으로 2층은 4계절 국내 유명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시전시되어 있으며, 1층에는 전관장이 당시에 함께 활동하던 영화배우 박노식, 허장강, 최은희 등 영화배우 100여명의 초상화 사진이 걸려있으며, 영화포스타 들도

벽면에 가득히 붙혀있어 영광스러웠던 옛 정취가 가득히 남아 있으며, 또한 국내 유명 미술작가들의 작품전시회 미술관련 도록 5000여부가 잘 소장되어 있다.

그는 아름다운 고성에서 작가의 심오한 마음을 불태우며 뜻 깊은 일을 해보기로 결심한 데로 산 꼭대기 진부령 미술관에서 작품세계를 여생이 다하는 날까지 후학들과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온 몸을 던져 언제나 열린 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나이 답지 않은 열정을 보여줬다.

/취재/최선호/고성문화원/





공양왕의 ‘간성릉(杆城陵)’에 대한 小考 -간성(杆城)지역을 중심으로-

고성문화원 향토사반

함 영 선

1. 들어가며

“어느 게 공양왕의 묘일까, 진짜 공양왕의 묘는 과연 있는 것일까.”

고려왕조 34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恭讓王, 1345~1394)의 능이 어느 것인지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향토연구가들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현재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묘는 경기도 고양시와 강원도 삼척시, 고성군에 있는 묘지 하지만 어느 게 진짜인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위와 아래의 내용은 고양신문 <2001.03.12> 오명근 기자가 지역신문에 올린 글을 재편집하였다.

그가 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 지역이 공양왕의 무덤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 대해서는 대체로 이러하다.

첫째 고양시 원당동 왕릉골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91호 (1970년 2월 28일)로 지정된 고려 공양왕릉 고릉에서는 매년 ‘고릉제’를 지내고 있다며 가장 ‘근접’해 있고 이곳 향토사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공양왕릉의 어진을 고양현 무덤 곁에 옮기라고 왕이 명하였다는 기록과 공양왕의 능묘가 고양에 있어 왕씨 자손들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며 “우리 것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이 능은 왕과 왕비의 봉분이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는 고려 공양왕릉을 표기한 비석이 서 있고 능 좌우에는 문무인석이, 정면에는 호석이 있어 무게를 더해준다는 것이다.

둘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는 지방기념물 제 71호 (1995년 9월 18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묘지 공양왕릉 또는 궁촌왕릉으로 불린다. 이 무덤은 화강암 둘레석 이외의 석물은 없으며 봉분 4기로 이뤄져 있다. 이 무덤이 공양왕릉일 것이라는 추정은 공양왕이 숨진 장소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궁촌리 주민들은 “조선시대에는 역대 고려왕들을 위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했다. 삼척시 주민들은 이곳을 공양왕릉으로 여기고 매년 4월 15일 ‘왕릉제’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산 서쪽 원정동 기슭에서 발견된 무덤도 ‘진짜 공양왕릉 경쟁’에 가세했다. 이 무덤은 고려 말 홍문관 박사를 지내며 공양왕을 모셨던 함부열(咸傳說) 묘의 뒤편에 있는 묘인데 비석이나 석물은 전혀 없지만 단, 고성 지역에서는 공양왕이 죽자 함부열은 그의 시신을 간성군 원정동 산기슭에 옮겨 묻어주고 후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가 문중에 아사로 전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1996년 공양왕 후손들도 왔다 갔는데, 그들도 간성 묘가 진짜 묘라고 하었다고 한다. 함부열의 후손인 양근함씨 종중이 매년 9월 30일(음력) 이곳에서 공동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 지역마다 근거와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사실에 인접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바라본 공양왕릉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문화유산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양왕릉이 지닌 역사성과 함께 고성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공양왕의 즉위와 폐위

우선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공양왕의 즉위 과정과 폐위 그리고 교살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양왕은 고려 제34대 마지막 왕으로, 1389년에 왕위에 올라 1392년 조선의 개창과 함께 폐위되었다. 이름은 요(瑤)이며,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정원부원군 균(鈞)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국대비 왕씨이고, 비는 창성군 진씨의 딸 부인 순비(順妃) 노씨(盧氏)이다. 1389년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심덕부(沈德符) 등에 의해 창왕(昌王, 1380~1389)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이성계 일파의 압력과 간섭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왕(禡王, 1374~1388)을 강릉(江陵)에서, 창왕을 강화(江華)에서 각각 살해하였다. 재위 3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이것은 이성계 등 신흥무인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이 당시 고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 기반 확대를 위한 개편이었다.

1391년 이성계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사대부들의 정치행위를 반대한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8월에 피살

되자 형세는 이성계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후 조준·정도전·남은 등에 의해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됨으로서, 공양왕이 폐위되어 고려 왕조는 막을 내렸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1392년(태조 원년) 7월 17일에 “남은(南閔)이 문하평리(門下評理) 정희계(鄭熙啓)와 함께 공양왕을 폐위하는 왕대비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北泉洞)의 시좌궁(時坐宮)¹⁾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俯伏)하여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不敏)하여 사기(事機)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原州)로 갔다.”²⁾

3. 공양왕 유배과정

가. 원주에서 간성으로

1392년 7월 12일 공양왕이 개성에서 원주로 유배된 것과 관련하여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蓀谷里)는 면소재지에서 동북쪽에

1) 시좌궁(時坐宮) : 그 당시에 왕이 거처하던 궁전.

2) “南閔遂與門下評理鄭熙啓齋教 至北泉洞時坐宮宣敎 恭讓俯伏聽命曰 余本不欲爲君 群臣强余立之 余性不敏 未諳事機 豈無忤臣下之情乎? 因泣數行下 遂遜于原州”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문막읍 궁촌리, 서쪽은 경기도 강천면, 남쪽은 정산리와 단강리, 북쪽은 노림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 이름과 관련하여 공양왕과 다음과 같은 지명 유래가 전한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유배를 당하여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손위실(遜位室)로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위’가 탈락되고 손곡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아마 이달의 호 손곡(蓀谷)은 손위실의 마을 이름을 따서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에 있던 공양왕은 1392년 8월 7일 왕이었던 왕요(王瑤)를 봉하여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하여 간성군(杆城郡)으로 유배 보냈다. 약 1년 7개월 정도 간성에서 생활하였던 공양왕은 공양왕 등을 앞세운 모반의 기운이 있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지자 태조 이성계는 1394년(태종 3) 3월 14일 공양군(恭讓君) 삼부자(三父子)를 삼척(三陟) 즉 지금의 근덕면 궁촌리로 옮겨 안치(安置)시키었다. 첫 유배지인 원주에서는 20여일을 머물렀으므로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후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곳은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고성산 자락이다.³⁾

3) 김도현, 『삼척 공양왕릉』, 삼척시립박물관, 2014, 37~39쪽.

공양왕이 간성에서 머물던 곳이 바로 수타사(壽陀寺)⁴⁾라고 전한다. 『고성군문화원』 발간 자료에 의하면 공양왕의 슬픈 이야기는 공양왕을 직접 모시고 고려조에 충절을 다한 함부열(咸傳說, 1363~1442)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온다. 조선개국의 혼란기에 형 함부림(咸傳霖, 1360~1410)은 개국공신으로 형조 판서를 거쳐 이후에 영의정까지 지냈지만, 고려 말 예부상서와 홍문관을 지낸 함부열은 조선개국 동참을 거부하고 유배중인 공양왕을 은밀히 수행하여 왕이 피살될 때까지 보필하였다고 한다. 공양왕 일행은 간성군 군내면 금장동(金章洞)⁵⁾ 수타사(壽陀寺)를 근거지로 머물렀다. 그 일행이 삼백여명에 이르렀으나 이성계의 감시와 압력으로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로 쫓겨나 살해치(殺害峙)라는 곳에서 한 달 후 1394년 4월 17일 피살되었다는 설과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때 아우 함부열이 형 함부림에 간청하여 공양왕을 간신히 피신시켰으나 이후 함부림은 조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자객을 간성으로 보내 공양왕을 살해했다

4) 수타사(壽陀寺) : 고성산(古城山) 자락 골짜기 안에 절이 있었는데, 공양왕이 간성에 유배 왔을 때 이곳에 유폐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은 옛 절터에 오층석탑이 남아 있다. 절의 폐사와 관련하여 빈대가 많이 끓어 흥천으로 이사 갔다는 말이 전한다.

이 절에 관련하여 『조선지리지』에 따르면 암자 터는 금수리부락 남쪽 약20정 고성산 기슭에 있고, 수태사터에는 삼층탑 1개가 불완전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庵址 郡内面 金水里部落ノ南方約二十町古城山麓二在リ水汰寺址、三重塔一基アルモ不完全”

5) 지금의 금수리(金水里)의 옛 지명이다.

는 것이다. 동생 함부열은 숨을 거둔 공양왕을 고성산 서쪽원정동(元政洞)에 비밀리에 묻고 후손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함씨 문중 야사에 전한다. 그런데, 1983년 8월 20일 함부열이 묻혀있는 묘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회곽분이 발견되어 함씨 집안에서는 공양왕이 묻혔다고 믿고 있다. 본고에서 이 계기로 인하여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조선시대 생육신 한 분인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국역 『추강집(秋江集)』 3권과 5권에 수록된 기행문과 시문의 내용을 발취(拔萃)해보았다.



〈수타사(壽陀寺) 5층 석탑〉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이 1485년(성종 16) 4월 15일부터 서울을 출발하여 금강산을 여행길에 올라 관동지역의 유람하고 쓴 『추강집(秋江集)』, 권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열산(烈山)을 지나고 간성(杆城) 땅에 들어가서 포남(浦南)⁶⁾의 민가에서 묵었다. 이날 바다를 따라 간 거리가 모두 120리이다. 5월 12일(壬辰)에 비를 무릅쓰고 포남에서 출발하여 반암(盤巖)을 지나 19리를 가니 비가 몹시 퍼부어서 간성(杆城) 객사(客舍)에서 유숙하는데 태수 원보곤(元輔昆)⁷⁾이 술을 보내 와서 운산(雲山)은 취해 넘어졌다.”⁸⁾라는 기록과 『추강집(秋江集)』, 권3 시문에 보면 간성에서 머무르는 동안 공양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매우 주목할 일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성릉(杆城陵)⁹⁾을 지나다 날이 저물어 찾아보지 못하고
회포를 3수를 적다.

6) 지금의 거진읍 송포리(松浦里)를 말한다.

7) 당시의 간성군수를 말한다.

8) 南孝溫. 「遊金剛山記」. “...前略)過烈山入杆城境 宿浦南民舍 是日 沿海行總一百二十里 壬辰 冒雨發浦南 過盤巖 行十九里 雨甚 止宿杆城客舍 太守元輔昆饋酒飯 雲山醉倒”

9) 간성릉(杆城陵) : 간성은 현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이다. 고려 공양왕(恭讓王)의 능은 강원도 삼척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데, 공양왕이 간성으로 추방되어 이곳에서 살해되어 묻혔다는 설이 있기에 간성릉이라 부른 듯하다.

〈過杆城陵日暮不克訪有懷三首〉

秦家不韋移神器 진나라 여불위가 천자 자리 옮기더니
謂辛屯也 신돈(辛屯)을 이른다.
函谷山川付子嬰 함곡관의 산천이 자영에게로 돌아갔네.¹⁰⁾
謂定昌君也 정창군(定昌君)¹¹⁾을 이른다.
虛器擁名纔四歲 허울 좋은 왕 노릇 겨우 네 해뿐이었으니¹²⁾
百年神算詎能成 백 년의 신묘한 계책 어찌 이룰 수 있으리.

둘

杆城無復萬機憂 간성 땅에는 다시 나라 경영할 걱정 없지만
落日陵含千古羞 해질 무렵 능침에는 천고의 수치 머금었네.
包胥不能存楚社 신포서¹³⁾도 초나라 사직 보존하지 못하더니

10) 진나라……돌아갔네 : 여불위(呂不韋)의 아들이 진시황(秦始皇)이 되었으나 진시황의 손자 자영(子嬰) 대에 천하를 잃었듯이 신돈(辛屯)의 아들 우왕(耦王)이 왕위에 오른 뒤에 공양왕(恭讓王) 정창군(定昌君) 대에 고려가 망하게 된 것을 말한다. 함곡관(函谷關)은 진(秦)나라 수도인 함양(咸陽)을 지키는 요충지이다.

11) 정창군(定昌君) :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恭讓王)을 말한다.

12) 허울 좋은……네 해뿐이었으니 : 1389년 11월~1392년 7월 16일까지 왕위에 있었다. 年數로는 四年이다.

13) 신포서(申包胥)도……못하더니 : 신포서 같은 충신들이 고려 왕조를 부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이다. 신포서는 춘추 시대 초나라의 대부이다. 오나라 군사가 초나라의 서울인 영(郢)으로 침입하여 왕이 피난하는 국난이 있자,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진

微箕猶復盡宗周 미자와 기자는 오히려 다시 주나라 섬겼네.¹⁴⁾

王貴王順入事本朝 왕귀(王貴)와 왕순(王順)이 들어와서 본조(本朝)를 섬겼다.

셋

房訓知天禪授明 방훈이 천명 알아 선양함이 밝으니

九原猶得讓王名 저승에서 오히려 공양왕이란 이름 얻었네.¹⁵⁾

千村煙火皆非舊 촌락의 연기 모두 옛 모습이 아니거늘

나라가 구원을 허락하지 않자 신포서가 대궐의 뜰에서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레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니, 진나라 애공(哀公)이 그 정성에 감격하여 구원병을 내어 오나라를 물리쳤다. 『春秋左氏傳 定公4年』

- 14) 미자와……섬겼네 : 왕귀(王貴)와 왕순(王順)이 조선을 섬긴 것을 말한다. 미자는 주왕(紂王)의 서형(庶兄)이고 기자(箕子)는 주왕의 숙부로, 주왕의 폭정을 누차 간했으나 듣지 않자 국외로 망명하였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하고 은 왕조의 봉제사(奉祭祀)를 위해 미자를 송왕(宋王)으로 봉했고, 기자도 무왕을 보좌하다가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되었다. 미자와 기자는 주왕(紂王)의 친척이다.

- 15) 저승에서……얻었네 : 조선 1416년(태종 16)에恭讓王으로 추봉되었다. 공양왕에 관련한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6년(태종 16) 8월 5일 “고려 마지막 왕 공양군(恭讓君)을 봉하여 공양왕(恭讓王)으로 삼고, 사신을 보내 능(陵) 아래에서 치제(致祭)하게 함.”

▶1416년(태종 16) 9월 29일 “예조로 하여금 고려 공양왕의 능호를 내리도록 하였다.”

▶1485년(성종 16) 3월 16일 “국조에서 공양왕을 위하여 특별히 묘지기를 두었고, 따라서 복호(復戶)를 해주었는데, 지금 비록 『경국대전』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편호(編戶)와 같이 역사(役使)시킬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陵後陵前水自聲 능침 앞과 능침 뒤엔 물소리 절로 내네.

나. 공양왕 제례

매년 가을 9월 30일(음력) 양근 함씨 종중에서 함부열을 제사 지내기 위해 많은 종친들이 모이는데, 이 때 공양왕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제(祭)의 순서를 소개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낸 뒤 공양왕을 위하고 다음에 중시조인 함부열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낼 때 읽는 축문(祝文)은 다음과 같다.

祭享日 山神祭祝

維 歲次 九月 朔 日 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咸 恭修 歲事于

代祖考 高麗國 弘文館博士 兼 禮部尙書 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饌敬伸 尊 獻 尙

饗

산신제를 지낸 후 공양왕을 위하는데, 제관은 양근 함씨 종손이 주재하며, 종친들이 집례를 하여 제례를 진행한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제물 진설
- ㉡ 초헌관 술을 받아 집례자가 묘에 3번에 걸쳐 뿌림
- ㉢ 초헌관 재배함
- ㉣ 초헌관 1명만 재배함
- ㉤ 집사가 술을 올리고, 삼시
- ㉥ 계개
- ㉦ 정저 후
- ㉧ 수저 빼고 밥그릇 덮고, 젓가락 내리고
- ㉨ 국을 물로 바꾸어
- ㉩ 다 함께 재배함 / 재배할 때 특별하게 헌관이 앞에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배함.
- ㉪ 제례를 마침

2014년 9월 30일 공양왕을 위한 제례를 진설한 제물 진설을 소재하면 다음과 같다.



〈공양왕 제례〉



〈고성 공양왕 제례를 위한 진설〉

4. 맺음말

이상에서 간성의 중심에서 바라본 공양왕의 관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양왕은 1389년 임금으로 추대되었다가 공양왕 4년(1392) 7월 17일 조준·정도전·남은 등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로써 공양왕은 폐위되었고, 고려왕조는 막을 내렸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공양왕은 원주로 추방되었다가 동년 8월 7일 간성군으로 유배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되었고, 1년 7개월 동안 간성군 수타사에서 머무르다가 1394년 3월 14일 삼척부로 근덕면 궁촌리로 옮겨졌다가 한 달 뒤 4월 17일에 살해치(殺害時)라는 곳에서 중추부사 정남진(鄭南晉)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설과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때 아우 함부열이 형

함부림에 간청하여 공양왕을 간신히 피신시켰으나 이후 함부림은 조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자객을 간성으로 보내 공양왕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동생 함부열은 숨을 거둔 공양왕을 고성산 서쪽 원정동(元政洞)에 비밀리에 묻고 후손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이다. 이처럼 역사의 기록과 구전에서 나타내듯이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자 비운에 왕이다. 그 일로부터 14년 이후 『태종실록』에는 1416년(태종 16) 8월 5일 고려 마지막 왕 공양군(恭讓君)을 봉하여 공양왕(恭讓王)으로 추봉되고, 사신을 보내 능(陵) 아래에서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임금으로부터 왕명을 받게 되고 보호될 때 까지 삼척과 고양, 그리고 고성지역에 있는 것이 진짜 묘지인가 대하여 확실하게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다만 어딘가에서 피살되었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양근함씨 문중에서는 1983년 8월 20일 함부열 조상이 묻혀있는 묘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회곽분’이 발견된 점과 단종(端宗)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강 남효온(南孝溫)이 1485년 간성지역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남긴 제재(題材)에는 ‘간성릉(杆城陵)을 지나며’ 이라고 했다. 이것은 곧 공양왕릉에 관련한 시이다. 현재에 와서는 1996년에는 공양왕의 후손들도 간성 묘가 공양왕이 묻힌 진짜 묘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추정에 불과한 공양왕릉에 관련하여 강원도 삼척과 경기도 고양에서는 매년 ‘왕릉제’와 ‘고릉제’를 지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기념물 71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191호로 지정해 놓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반면 간성읍 금수리 양근ham씨 종중에서 시제를 통해 공동 제(祭)만 올리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남효온이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지나는 길에 남긴 시의 제목처럼 공양왕의 ‘간성릉’에 대한 소고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일 과제로 삼고자 삼척과 고양에서 지내고 있는 행사와 같이 고성에서도 자료를 더 보충하여 고성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행사로 부각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아직도 고성지역 곳곳에는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다. 특히 공양왕이 유배생활을 했다던 수타사에는 그의 비운에 삶처럼 석탑만이 오랜 세월 속에 무상함만 더해주고 있다.



四溟大師가 의승병을 창의한 金剛山 乾鳳寺(금강산 건봉사)

(資料 高城文化院)

금강산 건봉사는 조선시대 4대 사찰 하나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사찰 31본산 중에 하나였다. 과거의 규모는 얼마나 웅장했는지 1878년(고종15) 4월 3일 화재로 3183칸이 불에 탔을 정도로 규모에 있어서 가름 할 수가 없다. 금강산 건봉사는 간성읍으로부터 서쪽 6km에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민통선에 가로 막혀 민간인의 출입이 평시에는 통제되어 있었으며 1년에 단 한번 석가 탄신일인 음력4월 초8일에만 출입이 허용되었다가 1988년에 되어서야 출입하는 길이 열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금강산건봉사는 현재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사찰을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절은 사방팔방으로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조감하면 연꽃 모양이라고 한다.

오른편 대웅전과 법당의 산기슭에는 사명대사의 기적비가 있

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이 끝난지 200여년 후 1800(정조 24)년에 세워졌다. 이 비석의 첫머리에 사명대사가 건봉사에서 의승병을 모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사는 모병 직전에도 금강산 내의 유점사에서 고성(건봉사)으로 왕래하면서 여러 사찰과 암자에서 승려들을 모았으며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경내가 비교적 넓은 건봉사가 모집과 연병에 적합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강산건봉사는 이처럼 사명대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절로서 사명대사에 대하여 서애 유성룡은 〈서애선생 별집 제4권〉 잡저 송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명대사가적비 1212년 촬영〉

을사년(1605, 선조38) 5월에 승장 송운이 일본에서 잡혀간 우리 포로 1천여 명을 거두어 4~50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인 굴지정과 함께 돌아왔다. 송운은 일명 유정이라 하는데 성은 임씨로 밀양 사람이다. 선대는 사족이었는데 송운에 이르러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시에 매우 능하였고 진초를 잘 써서 총림에 이름이 났다. 임진년, 금강산에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왜병이 절에 난입하자—중들이 흩어져 숨었으나 송운만은 꿈쩍 않고 앉아 있으니 왜병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둘러서서 합장하여 경의를 표한 후에 물러갔다.

그 해 가을에 내가 안주에 있으면서 각 도에 통문을 보내어 승려와 속인을 막론하고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위해 충성하라고 하였다. 통문이 이르자 송운이 그 통문을 불탑 위에 펼쳐 놓은 후 중들을 이끌어 모아 놓고 흐느껴 울었다. 드디어 승병 천여 명을 모아 평양으로 가서 임원평에 진을 치고 왜병과 연일 싸웠으며 이로부터 오래도록 군중에 있었다. 또한 일찍이 청정의 군영에 두 번 들어가 논설한 일이 있었는데, 의기가 격렬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지난해 조정에서 일본으로 가 유람하는 체하며 적중의 소식을 탐지해 오라는 명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두 위험스럽다고 여겼으나, 송운은 서슴지 않고 어려워하는 빛도 없이 나섰다가 이에 이르러 일을 수행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사명대사는 1557년(명종 12) 13세 때 황악산

지직사로 출가하여 선문에 들어가서 18세 때 선과에 급제했다.

32세 때 묘향산 보현사로 가서 서산대사의 문하에서 3년간 수도 고행하였으며, 이어 전국의 명산과 중요사찰을 순례했다. 특히 금강산의 표훈사에서는 사명대사가 오랫동안 기거하였고 건봉사에서는 임진왜란으로 왜적이 전국토를 짓밟고 있을 때 의승병을 모집 훈련한 곳이다.

대사가 왜적을 만난 곳은 금강산의 유점사였으며 처음에는 왜적을 타일러 금강산 밖으로 물러나게 했다고 한다.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모았던 당시의 사정을 직접 선조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알렸는데 그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난리가 일어난 처음에 신은 강원도 개골산에 있었나이다. 여기에서 이 큰 난리를 만나 적진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왜장과 문답하였으며, 드디어 승려들을 모아 의승병 백여 명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 때 마침 도총섭의 격문을 보았사온데 특히 그 글 속에서 군민을 효유하시는 성지가 인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두 눈에서 눈물이 가리고 글자마다 피가 맺혀 차마 다 읽지를 못하였나이다. 신이 본래 거느린 의승이 150명이었는데 다시 60명을 얻고 서쪽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평양성 탈환과 서울 수복에 있어 의승병의 역할은 이러했다. 서산대사는 순안 범홍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의승병을 이끌고 평양으로 온 사명대사와 합세하였다.

의병의 수는 순간에 모였던 1,500명과 사명대사가 인솔에 온 2,000명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1,500으로 모두 5,000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물론 승려가 아닌 평민, 의병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서산대사가 총 지휘관이었고 사명대사는 부장으로 참모 역을 맡았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해 10월 명나라 원군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재정비한 관군과 의승병만으로 평양성 탈환을 꾀하였다가 11월에는 의승병 단독을 평양성 공격을 실행하려 했다. 그러나 명나라 심유경이 회의차 평양성의 왜장 고니시 진영에 머물고 있어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 12월 명의 원군이 도착하여 관군과 의승병이 합동으로 평양성에 농성하고 있는 5만여 명의 왜적을 공격하였다. 의승병은 명군과 전열을 함께하여 주로 모란봉 최전선에서 싸워 많은 적군을 못질렀다.

이러한 의승병의 맹활약으로 평양성 탈환이 성공되자 명나라의 경략 송응창과 제도 이여송 등 여러 장수들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게 격찬과 경의의 뜻을 전했다. 그 이듬해 4월 서울이 수복되자 10월에는 선조 왕이 환도 할 때 의승병 총사령관 서산대사는 고령으로 의승병의 지휘봉을 사명대사에게 물려주고 충섭의 인장을 반납, 모향산으로 돌아갔다.

의승병이 이처럼 용맹하고 강했던 이유를 ‘사명대사의 의승병기념관 개관 전야제’ 건봉사 학술회의와 현장답사라는 논문

에서 유종현 교수(한양대 초빙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불교사상을 공유하며 당시 사회적 신분이 천민이었다는 점,

둘째 승직의 위계로 상하간의 명령계통이 확립되어 있었으며, 전국의 사찰조직을 활용, 광범위한 통일적, 조직적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셋째 일상생활의 무대가 산악지대였으므로 체력이 강인한데다가 산간지리에 능숙했다는 점, 넷째 산간벽지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우수한 생산기술 집단으로서 강력한 군사집단이 되었다는 점, 다섯째 승려는 가족이 없으므로 사후의 걱정 없이 마음껏 싸울 수 있었던 점, 여섯째 자발적 의승병이었지만 정부의 엄중한 통제 하에 있었던 무장집단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사명대사가 이끌고 훈련시켰던 150명 정예로운 의승병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속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의승병이 기세가 대단이 높아서 관군을 능가하고 있어 평양성 탈환의 전투에서 희생자는 하나도 없어 수천 명의 왜적을 베었다는 것이며 이어서 계속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왕은 그해 (선조 26년) 3월에 대사에게 선교양종관사를 제수하였고 또 4월 12월에는 교지를 내려 “승장 유정은 그 병이 자못 정예하여 참획지공을 여러번 세웠으므로, 비록 군직을 바라지 않는 방외의 사람이지만 불가불 파격

적인 특상으로 더 많은 전공을 거두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당상직을 제수하였다.

오늘날까지의 사명대사가 의승을 모으고 조련한 첫 근거지가 건봉사라고 강원도관찰사 남공철의 〈사명대사기적비〉에 밝히고 있다. 건봉사는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금강산 안쪽의 사암들 보다는 산 밖의 큰 절을 중심으로 기병하고 훈련하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선조실록〉 1592년 9월 기록에는 인재를 널리 구할 것을 제청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어지러움을 바로잡아 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는 인재가 우선 급합니다. 옛사람이 인재를 구하는 길은 매우 넓어서 혹은 노예에서도 발탁하였고 혹은 향오 에서도 선출하였으며, 혹은 상인에게서도 등용하였으니, 오직 재능만 있으면 바로 채택하고 댄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이유가 있습니다. 삼가 이 시대에 절실히 등용해야할 사람을 열 가지로 분류하여 뒤어 자세히 열거하오니, 문무의 재신, 양사, 홍문관, 지방의 감사, 병사, 수령으로 하여금 각기 이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직책의 유무나 서자, 공사 천인을 막론하고 실제의 재주를 들어 세상에 많이 등용하면 실로 다행하겠습니다.

1. 재지와 식견과 사려가 있고 병법을 환히 알아서 장수의 책임을 감당할 만한 자.

2. 학식이 있어 사무를 알고, 자상하고 청렴 근검하여 재주가 수령을 감당할 만한 자.
3. 담력과 역량이 있고 언사에 능하여 외국에 나가 사신의 임무를 받들 만하고, 적진에 출입하여 그 동정을 정탐할 만한 자.
4. 집에서 효도하고 공손하며 의분에 비분강개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을 만한 자.
5. 문장에 뛰어나고 사명에 능한 자.
6. 용력이 있어 활을 잘 쏘고 칼과 창을 잘 다루며, 담력이 있어 적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
7. 농사일을 잘 알아서 백성에게 갈고 심는 일을 권하고, 마르고 젖은 땅을 분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마련할 만한 자.
8. 재물을 다루는 데 능하여 혹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거나 혹은 산에서 쇠를 만들어 사방으로 옮겨다가 무역하여 이윤을 내어 사용을 넉넉히 할만한 자.
9. 산법을 환히 알아서 회계에 능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을 만한 자.
10. 기교가 있어서 창과 칼, 조총, 크고 작은 포, 성을 수비하는 병기를 잘 제조하고 혹은 화약을 잘 구워낼 만한 자.



간성향교 근현대 考察(고찰)

杆城鄉校 장의
朴 有 祚

1. 간성향교 연혁(沿革)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성군과 간성군에 각각 (각각) 향교(鄉校)가 있었다. 조선조(朝鮮朝) 세종(世宗) 2년 경자(庚子 1420년)에 성북(城北) 용연동(龍淵洞) 현 간성읍 상리 쇠룽골에 창건하였다, 그후 풍수설(風水說)을 믿고 거진읍 대대리(大垈里) 방축동(防築洞)에 이전 하였으나 기지(基址)가 좁아 명종원년(明宗元年) 병오(丙午 1546년)에 당시군수 함헌(咸軒 1546~1549)이 택지(擇址)하여 해상방척축화동(海上坊躑躅花洞) 현, 간성읍 교동리(校洞里) 함박꽃골에 이전(移轉)하였다. (移建記 참조)

수성지(水城誌) 학교조(學校條)에 군북천(郡北川) 마기라산(麻耆羅山)의 낙맥(落脈)인 규봉산록(圭峰山麓)에 있으며 군성

(郡城)에서의 거리는 약(約)칠리(七里)이라했다.

문루(門樓)가 있었고 계산(溪山)을 조망(眺望)하면 천변(川邊)에 송림수백주가 은영(隱映)하며 시내를 따라 수석(水石)이 있고 석벽(石壁)에는 화훼(花卉)와 도림(桃林)이 우거져 있다. 구교(舊校)는 군성(郡城) 북쪽에 있던 것을 오리(五里)지점인 대대방(大垓防) 구산하(樞山下)로 옮겼다.

그후 명종(明宗) 병오(丙午)단기3879년(1546)에 郡守 함헌(咸軒)이 택지하여 현재 있는 교동리로 이전(移轉)하였다.(邑誌참조)

이곳 문묘에 봉안되신 성현은 공자를 위시한 오성위와 공문 십철 송조육현 아국팔현으로 모두 39위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춘추기에 석전제를 봉행한다.



〈간성향교 전경〉

2. 향교의 의식(儀式)

- 1) 석전대제의 봉행, 석전이라함은 문묘에서 공부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일컫는 말이다. 즉 만세종사이신 공자님께서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할 효제충신의 실천과 수제치평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의 예로서 춘추길일(음력2월과8월의 上丁日)을 택하여 생폐예제를 헌설하고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뜻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를 봉행하는 것을 석전이라고 한다.

간성향교에서는 매년 유림의 주관으로 음력 2·8월 상정일을 택하여 행하던 일지를 전국유림 총의에 따라 2007년부터 춘기에는 공부자의 기일인 5월11일에 올리고, 추기에는 탄강일인 9월28일에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다.

- 2) 삭망분향례 문묘의 분향례로 명나라 태조 홍무17년에 칙령(勅令)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해학제주 이하가 석채(釋菜단조로운차림)례를 행하고 군현(郡縣) 장이(長吏)이하가 학궁에 나가 분향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이있다.

삭망분향례의 삭(朔)은 매월 초하루(1일)요, 망(望)은 매월 보름(15일)을 말한다. 이날 새벽에 유림들이 교궁을 청결하게 하고, 대성전 내외를 살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선성선사께 추모의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사망례는 전교는 관복을 입고 일반유림은 유건에 유복을 입고 홀기에 따라 분향하고 사배를 한다.

3) 고유례봉행(선임 및 임명고유)

주요 기관장으로 선임되었거나 임명되었을 때 또는 향교 유림이 성균관 임원으로 선임 임명되었을 때 고유사유가 발생하면 날자를 정하여 고유례를 행한다. 제수는 차리지 않고 고유자 명의로 축문을 고하게 되며 그 외 모든 절차는 분향례를 준용해서 봉행한다(예:시장,군수 취임 고유례 등)

또한 문묘 봉심 고유례는 성균관장단 및 임원이나 타지역에서 본 향교를 봉심하게 되면 제집사를 분방하고 축문을 작성하고 고유례를 봉행한다.

4) 기로연(耆老宴) 행사

조선시대에 예조판서의 주관아래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에는 상사(上巳:음력3월상순의 사일(巳日) 또는3월3일), 가을에는중양(重陽:음력9월9일)에 정기적으로 국가 보제루에서 베푸는 큰 잔치를 의미한다. 간성향교에서는 관내거주 70세이상 원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사상을 드높히고 위로하며 예우하기 위하여 해

마다 가을철(11월)에 기로연 행사를 실시한다.(투호 및 윷놀이대회, 헌작례,계수배의식, 민요공연, 기로잔치, 기념품증정등.)

5) 전통혼인대례 재현(再現)

신랑 신부의 양가에서 장소를 정하여 전통혼례를 청하면 향교에서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기간중 실제적인 혼인대례를 치르고 있다.

이성이 결합하는 인륜지 대사를 군민의 축복속에 함께 어우러져 전통혼례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미풍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우리 방언에 대한 소고(小考)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선 국

지난 2009년 ‘우리 방언에 대한 소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방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문자·몸짓 등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관습적 체계라고 한다. 그리고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이 바로 언어라고 한다. 지구상 모든 인류는 언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없고, 한편 아무리 고등한 유인원(類人猿)일지라도 인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¹⁾

국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共用語)로 인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 즉 국가어(國家語, national language)를 말한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언어 [language, 言語] (두산백과)

이러한 국어는 크게 표준어와 방언으로 구분된다. 국어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삼은 것이다. 그런데 기호 지역 방언이 모두 표준어와 같지 않다.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대립되는 경우 보다는 혼용되거나 대체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1. 방언의 의미

방언을 보통 사투리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는 다소 규범적인 면에서 보아 비하된 개념이므로 언어학 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여 언어학적인 방언이란 한 언어가 분지적(分枝的)으로 발달하여 몇몇 개의 지역적으로 다른 언어체계로 분화되었을 때 그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영어와 독일어도 더 큰 게르만조어(祖語)에서 분지하였으므로 방언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 분지된 경상도말과 전라도말도 방언이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국어와 방언은 본질적으로 구별이 없다. 그러나 방언을 국어와 대립된 개념으로 쓰려면, 각각의 방언 사용자들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때의 국어를 방언이라고 한정시키는 수도 있으나 객관적인 정의는 되지

못한다.

방언이 생기는 까닭은 우선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의 화자(話者)와 한 사람의 청자(聽者) 간에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지역의 차이가 적을수록 방언의 차이가 적으나 이 지역의 차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문화적인 면도 고려된다.

따라서 지역이 갈라지는 것은 언어 사용자의 이동 등을 통하여 산·강 등의 자연장애, 도로·해로(海路)가 없어지거나 정치·행정구역, 통학구역·시장권역, 종파적 구획, 지역사회의 폐쇄성 또는 고립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2. 방언권역

국어를 강, 산, 행정구역 등 자연적인 위치에 기반을 둔 지역 방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국어는 지역 방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지역 방언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다시 대방언권, 중방언권, 소방언권으로 나누어진다.

국어를 대방언권으로 나누면 대체로 함경남북도를 포괄하는 동북 방언, 평안남북도를 포괄하는 서북 방언, 경상남북도를 포

괄하는 동남 방언, 전라남북도를 포괄하는 서남 방언, 제주도를 포괄하는 제주도 방언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포괄하는 중부 방언 등의 여섯 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 이 여섯 개의 대방언권 가운데 중부 방언은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남북도³⁾는 물론이고 함경남도 영흥 이남지역까지의 지역을 포괄한다.)

중부 방언에 대한 명칭은 국어 변천사를 근거로 이승녕(1967)에서 구분한 여섯 개의 방언권 가운데 하나인 중부 방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소창진평(小倉進平)(1944)의 경기도 방언이나 하야육랑(河野六郎)(1945)의 중선방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연구자에 따라 국어 방언을 일곱 개로 나누기도 하고 남북 또는 동서로 나누기도 하여 중부 방언의 하위 방언권은 다시 다른 방언권에 소속되기도 한다.

강원도 방언은 백두대간을 분계선으로 하여 영서, 영동으로 나누지만, 대간의 줄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을 시군별로 구분하면

2) 소창진평(小倉進平)이 국어 방언을 함경방언, 평안방언, 경상방언, 전라방언, 중부방언, 제주방언 등 여섯 개로 구획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하야육랑(河野六郎)은 중선방언, 서선방언, 북선방언, 남선방언 제주도 방언 등 다섯 개의 방언권을 설정하였는데 남선 방언은 소창진평이 설정한 경상방언과 전라방언을 포괄한다.

3) 소창진평(小倉進平)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황해도 대부분을 중부 방언에 포함시키되 강원도 울진과 평해는 경상도 방언에 편입시켰다.

- 영서방언권 :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
- 영동방언권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 정선, 영월로 나눌 수 있다.

영서방언권에 속한 시군들의 언어는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영동방언권에 속한 지역들은 방언적 차이를 보여 영동북단방언권, 강릉방언권, 삼척방언권, 영동서남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동북단방언권은 고성, 속초, 양양이 속하며, 휴전선 이북 북고성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방언권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강릉방언권은 강릉, 명주를 묶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때로는 양양과 가까운 관계를 보이기도 하나 여러 방언 특징에 의해 이웃지역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방언권을 형성한다.

삼척방언권은 삼척, 동해, 태백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영동의 한 방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영동서남방언권은 평창, 정선, 영월의 3개 군을 묶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동방언과 영서방언권의 요소가 뒤섞여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동방언권에서 영서방언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권이다.

3. 우리 방언의 실태

한 국어 안에서 방언의 분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적 차이에 의해 방언이 발생하는 경우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회계급, 성별과 연령 차이 등에 의해 방언이 분화되는 경우이다.

먼저, 두 지역 사이에 큰 산줄기나 강, 또는 큰 숲이나 늪, 해안과 산간 등의 지리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러하지만, 이러한 뚜렷한 장애물이 없더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양쪽 지역 주민들 사이의 왕래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두 지역의 언어는 점차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든가 생활권역이나, 학군, 또는 교구 등이 다르다는 것도 서로의 왕래를 소원(疏遠)하게 함으로써 방언의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수가 많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든지 이처럼 지리적인 이격으로 인하여 서로 분화를 일으킨 방언 각각을 지역방언(地域方言 regional dialect)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백두대간의 동편에 접하고 있고 표준말을 기준이 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

다. 즉,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산간과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차이로 인해 독특한 방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대 종족인 예(穢)족은 고구려와 같은 종족으로 ‘언어와 풍습은 같으나 의복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언어는 통일신라 이후 신라어의 계통의 언어이며 고구려어와 달리 한계(韓系)에 속하는 언어로 삼국통일 이후에도 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했던 언어였음에 반해 고구려어는 북방군(北方群)의 부여계에 속했던 언어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소멸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고대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언어는 현대의 강원도 지역 방언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방언적 차이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려의 성립과 경주에서 개성으로의 수도 이전을 거쳐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고구려어의 언어적 특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현재의 강원도 방언으로 발전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고유어 지명들 중에서 몽그미, 민달그미(마차진리), 용숫개미(송호정 아래 개), 행개미(송호정 건너 개), 용소꾸미(화진포 깊은 소), 애기미(아야진리) 등의 마지막

음 ‘~미’는 진(津), 소(昭), 수(水) 등 물과 관계되는 지명의 끝에 붙어 있는 것으로 고구려어의 흔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고구려 지명에서 ‘수(水)’를 뜻하는 음독(音讀)은 매 ‘매(買)’, ‘미(米)’, ‘미(彌)’(買忽-云水城, 內乙買-云內尔米)자의 음독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시 우리나라 음은 ‘미’ 정도로 읽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고유어 지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말 ‘~미’는 고구려어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우리 지역 방언은 1985년 고성군지(高城郡誌)를 편찬하면서 숭실대 박종철 명예교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게 되었지만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로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언들이 주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1. 고성군지, 1998, 고성군
2. 우리 방언에 대한 소고, 2009, 고성문화
3. [네이버 지식백과] 국어 [國語]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네이버 지식백과] 언어 [language, 言語] (두산백과)



잘 보존된 문화재, 역사가 바로 선다.



고성소방서장
남궁 규

1. 서론

문화재는 오랫동안 역사의 과정을 지켜온 귀중한 자산이며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들이다. 문화재는 무엇과 바
꿀 수도 없지만 한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 가치가 있는 것
이다.

문화재는 주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주인이므로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는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며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고 할 때 세계화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고 튼튼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바로 전통문화의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소재를 찾고 개발해 나가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와 그 실체인 문화재는 국가가 처한 고유한 환경과 인문학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모습으로 성립된다. 목조문화재가 주류를 이루는 동아시아 문화의 차이도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문화와 문화재가 지닌 고유한 속성에 따라 그 정책도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목조문화재가 다수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원형 유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목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어서, 건물을 포함하여 목조로 이루어진 문화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산지는 전란시 또는 건조한 시기가 되면 화재에 쉽게 노출되었으므로, 그 속에 위치한 목조문화재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 되어 왔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건봉사의 경우 산불로 1878년에 3,183칸에 달하던 건물이 모두 소실된 기록이나 최근 낙산사 화재 등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지역 문화재 및 국가 중요 문화재에 대한 연혁 및 화재사례를 소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중요문화재 화재사례

(고성군 건봉사)

520년(법흥왕 7) 아도(阿道)가 창건하고 원각사라 하였으며, 533년(법흥왕 20) 부속암자인 보림암(普琳庵)과 반야암(般若庵)을 창건하였다.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 중수한 뒤 절의 서쪽에 봉형(鳳形)의 돌이 있다고 하여 서봉사(西鳳寺)라 하였으며, 1358년(공민왕 7) 나옹(懶翁)이 중건하고 건봉사라 하였다.

1878년 4월 3일 산불이 일어나서 건물 3,183칸이 전소되었는데, 이 때 학림(鶴林)이 불 속에 뛰어들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감도 등을 꺼내었다. 1888년 청련암과 대원암이 불 탔으며, 6·25전쟁 때 이 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당시까지 현존하였던 당우로는 대웅전, 관음전, 사성전, 명부전, 독성각, 산신각, 단하각, 진영각, 범종각, 봉청루, 보제루, 대지전, 동지전, 서지전, 어실각, 어향각, 동고, 낙서암, 극락전, 만일원, 보안원, 선원, 월적암, 사무소, 불이문, 여관, 장의고, 성황당,

수침실(水砧室) 등 총 642칸에 이르렀다. 중요 문화재로는 도금 원불(鍍金願佛), 오동향로, 철장(鐵杖), 대종, 절감도, 차거다반(磚礪茶盤) 등과 불사리탑 등 탑 8기, 부도 48기, 비 31기, 고승 영정 44점 등이 있었다. 현재 고성 건봉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고, 6·25전쟁 때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불이문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능파교와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조각이 새겨진 두 개의 돌기둥, ‘대방광불화엄경’ 이라고 새겨진 돌기둥 등이 있다.

(양양군 낙산사)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 안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가 예불하던 중 관음보살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절을 지을 곳을 알려 주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하였다 한다. 858년 신라 헌안왕 2년 범일대사가 중창하였으나 1231년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1467년 조선 세조 13년 왕명으로 크게 중창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화재를 겪었다. 다시 1624년 인조 원년, 9년(1631)과 21년(1643) 재차 중건이 있었으나 1777년 정조 원년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 다시 중건하였다. 한국 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53년에 다시 지었지만, 2005년

4월 5일 23시 53분 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4월 6일 아침 산림청과 대한민국 국군은 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은 아침 7시 경 바람을 타고 낙산해수욕장까지 번졌고 오전 11시 20분경 큰 불이 거의 잡힌 듯 보여 주민들은 속속 집으로 돌아와 가재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진화 작업을 위해 투입됐던 헬기는 고성 산불 진화를 위해 기수를 돌린다. 하지만 찾아지던 불길은 오후 1시경 강풍을 타고 되살아났으며 헬기도 양양으로 방향을 돌린다. 오후 2시 30분 양양군은 재난 경보를 발령했지만 15시 30분 **낙산사**에 산불이 확산되어 방화선이 무너졌고 산불이 일어난지 불과 1시간 만에 낙산사 대부분의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4월 7일 양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 화재로 21채의 건물이 불타고 보물 479호로 지정되어 있던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면서 보물에서 지정 해제된다. 산불 이후 동종은 복원되었지만 다시 보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보물 제479호는 결번으로 남아 있다. 2007년 4월 5일에 복원했다.

(서울특별시 숭례문)

숭례문(崇禮門)은 조선 태조 5년(1396)에 최초로 축조되었고 1398년 2월 중건되었다. 이 문은 조선시대 한성 도성의 정문으

로 4대문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대문으로도 불린다. 1448년에도 크게 고쳐지었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남대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양측에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1908년 도로를 내기 위하여 헐어 내고 성문만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으나, 2006년 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물에서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인한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졌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탄채……, 1396년 창건이후 500여년 간 서울을 지킨 숭례문은 화강암 기반만 남았다. 숭례문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 불을 막으려 지은 숭례문을 불로 잃은 셈이다. 다른 대문들과 달리 유독 세로로 세워졌던 숭례문 현판, 불꽃을 형상화한 모양의 이 현판만 불길 속에서 살아 남았다.

3. 결 론

문화재는 한나라의 역사이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숭한 전란과 화재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또한 소실된 문화재는 재건과 복원을 반복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 관리

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할 때이다. 따라서 화재에 대비한 절실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고 국민안전처와 문화재 관련부서에서도 협업하여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관에서는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일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화재발생시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해 문화재 관리주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소방훈련과, 화재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련부서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각 문화재 특성과 주변지형 및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도입한 첨단 개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문화재 특성과 우리의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청정소화기, 불꽃감지기, 방수포, 각도조절이 가능한 상향방수식 수막설비 및 미분무수설비 등 첨단 맞춤형 방재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지역 고성에도 각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화재에 대비한 첨단 소방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류가 전 세계 속에 주요한 문화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는 이 때에,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하여 첨단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개발하는데 대해, 소방기관에 몸담은 이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도입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자율적인 소방시설 점검, 소방교육훈련 등 화재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함께 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향 주민들이 잘 사는 길



고려대 명예교수
서 연 호

필자의 고향은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이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당시 인민학교) 3학년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속초로 피난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속초에서 자랐으므로 두 번째 고향은 속초인 셈이다. 1960년대 초에 직계가족은 서울로 이사했지만 봉평리 일대에는 친족들이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고, 조상을 모신 선산이 그곳에 있어 가끔 향리를 찾아 어른들에게 문안드리고 선산 참배도 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고향 주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다.

오늘날의 고성군은 오랜 세월 간성군과 공존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강릉과 함께 예국(濊國)의 땅이었다. 고구려에서 오늘날 현내면 이북지역은 달홀(達忽), 이남지역은 수성(遼城)이라 불렀다. 이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어 진흥왕 29년(568)에 주(州)를 만들어 군주(郡主)를 두었고, 통일신라의 경덕왕 7년(748)에 고성군 및 수성군으로 고쳐서 군이 되었다. 고려에서는 군에 현령(縣令)을 두었다.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두 군은 삭방도(朔方道)에 편입되었고, 현종 3년(1012)에 5도양계로 개편되면서 두 지역은 동계(東界) 고성현과 수성현이 되었다.

현종 이후 간성현는 한때 군으로 승격되어 고성현을 관할했다. 공양왕 1년(1389)에 다시 고성현과 수성현으로 나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고려말에 이용계(李龍溪)에 의해 최초의 교육기관인 간성향교가 설립되었다. 조선 세종 때 고성현과 간성현은 각각 군으로 승격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강릉부 관할에 들었다가 이듬해 강원도 관할로 바뀌었고, 고성군은 간성군에 편입되었다. 1919년 3.1운동 때 간성시장에서 독립시위가 계획되었지만 사전에 누설되어 시장이 폐쇄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5월 15일, 군내 죽왕면과 토성면을 양양군에 편입시켰고, 간성군은 고성군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35년에 오대면은 거진면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고성군은 민족분단의 상징인 비극의 땅이 되었다. 1963년부터 남한의 고성군에는 지역 관할에 변화가 있었고, 거진읍(1973,7)과 간성읍(1979,5)이 생기고, 3개면(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으로 되었다.

고성군은 6.25전쟁의 격전지였고 전쟁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남한의 최북단지역이다. 험준한 백두대간의 동편에 바다를 면한 좁은 지역인데다 농지는 좁고 계절에 따른 기후의 변화가 심하며 파도가 높아 어로에 지장이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해수온도의 변화로 바다에 고기떼들이 사라지는 흉어(凶漁)의 시대를 맞았다. 지하자원도 없고, 수도권이나 수출항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공장이나 기업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말 그대로 인간의 생존조건이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필자가 태어났고, 내 고향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살아 온 것은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적으로 현재를, 지역적으로 자신의 일터(직장) 주변에서 살아간다. 일정 시간과 일정 지역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삶이고, 장수시대라 해도 고작 1백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또한 기왕 살 바에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문화적으로 가치있게,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생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마을, 지역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과연, 고향 주민들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단상을 말해 보려 한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강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다. 민주화정권이 수립된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숭하게 법률을 제정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성문법(成文法)과 시행령 체계를 갖춘 나라는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법을 지키기 않으면 불행해지는 줄 알면서도 그 법을 쉽게 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대 결점이다.

법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관습(慣習)이고, 법으로 모두 정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관습이다. 가장 중요한 관습의 하나가 우리의 도덕(道德)이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도덕이 많았다. 이 도덕이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도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살벌해지고 냉담해지고 험악해졌다. 이웃 사람, 친척, 친지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地自體)의 발전이다. 1994년에 시작된 지자체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세계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미래적 발전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즉, 이권의 쟁탈을 위한 도구로 지자체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익집단은 먹이사슬로서 선거를 악용하고, 선거에 이기면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런 타성과 악습이 계속되다보니, 선량한 투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에 동참해 어느 편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이 다 이런 판국이다. 그 동안 당선과 더불어 검찰에 구속되는 지자체의 장(長)을 우리는 TV화면에서 수 없이 보았다. 필자는 일본에서 수년간 외국인 교수를 하면서 일본 지자체의 현장을 자세히 보았다. 보통 세 차례의 임기를 다 하고 떠나야 하는 지자체장을 보고 ‘그 사람이 더 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쉽게 말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일본의 지자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잘 살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두고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셋째로 지역적 특색 및 생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고성군은 누가 뭐래도 금강산지역이다.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의 최고, 최대 자원이다. 속초의 설악산지역과 연계하면서 고성 지역의 우리 자연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들이 수 있다. 경치가 좋은 곳을 모두 개인에게 불하해서 자연을 깡그리 훼손하고, 지역적 특색이 없고 개성이 없는 부실한 시설을 양산해 놓으면, 관광객들은 우리 지역을 찾아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과도한 공공 투자를 들이는 것도 재정과 자원의 낭비에 해당한다. 이미 얼마나 많은 꼴불견 시설들이 눈에 뜨이는가를 되돌아 보기 바란다.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縣) 지사(한국의 도지사)는 일찍이 일촌 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을 통해 자신의 고향을 부유한 현(縣)으로 만들었다. 경쟁이 심한 일본에서 가장 낙후된 자기 고향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 운동밖에 도리가 없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마을마다 각자 특색있는 농산물이나 상품을 하나씩 최고로 잘 생산해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다. 이런 ‘최고의 상품’을 위해 사람들은 협력하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지자체 지도자들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5년 뒤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되었고, 상품을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고성군의 각 마을에서 최고로 유명한 생산품은 정말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생산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만이 잘 사는 길이다.



건봉사와 만해의 여인 서여연화 보살



설악고등학교 교장

권 성 준

소똥령 마을에 등지를 뜬 지 3년이 넘었다.

진부령 그 긴 고갯길을 함께하는 산비탈에 자작나무는 하얗게 겨울을 기다리고 소나무는 제 홀로 푸르름을 자랑한다. 계곡 따라 내려가면 가까운 이웃에 건봉사가 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이웃사촌 집을 찾듯, 단골 목욕탕을 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가는 건봉사!

내 고장에 있음에 늘 자랑스럽고 이방인에게 소개하는 곳이다.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건봉사는 백담사와 설악동 신흥사 등 인근의 절집들을 거느린 큰 절이었다고 한다. 절집에 전해지는

만해 한용운(이하 ‘만해’)의 흔적은 일주문 밖에 선 만해의 시 뿐이다. 건봉사에서 만난 만해는 ‘사랑하는 까닭’을 말한다. ‘당신이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이고,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이며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어느 신문기자가 쓴 글에 ‘몇 해 전 노승에게서 들은 만해는 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저 바닷가 간성읍에 내려가 술에 취해 사람들의 먹살을 잡기도 했다’¹⁾는 만해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건봉사를 접하며 만해를 가르친 과거 26년의 국어교사 생활을 되돌아본다.

만해 시가 교과서에 종종 등장한다.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 〈사랑하는 까닭〉 등등. 대부분의 만해 시에는 ‘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만해의 여러 시에 나오는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해를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님’은 빼앗긴 조국인가? 그를 승려이자 불교사상가로 본다면, ‘님’은 불타(佛陀)인가? 혹은 중생(衆生)인가?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 본다면, ‘님’은 사랑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들 중 어느

1) 윤승일 기자/ 한겨레 〈허스토리〉부

것도 아닐 수 있는가?

많은 논자들의 의견대로 나도 ‘님’의 정체와 관련하여 민족·조국·민중·불타·중생·불교의 진리 등으로 해석하였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로 풀이된 시어를 가르치며 의기양양하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가르친 지난 날, 지금 생각하면 만해 시를 가르치는 교사로 수업할 때 무척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 학생들은 어떠했을까?

뒤돌아보고 그 때를 생각하면 참 시험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정렬을 불태웠던 시절이 부끄럽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나 시집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를 접하게 된다. 문학을 접하는 시기에 첫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때 소재나 주제가 너무 무겁거나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문에 쉬운 주제로 서서히 다가가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텐데, 나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뒤돌아보며 반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걱정도 없는, 인간 본연에 모습 그대로의 만해 입장으로 그렇게 많이 등장한 ‘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싶다.

만해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분과 인연을 맺었던 세 분의 여성이 등장한다. 만해는 당시 조혼 풍습에 따라 열네 살(1892년) 나이로 광천 출신의 전정숙이라는 분과 첫 결혼을 하고 보국이

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19살 때 속가를 떠나 승려가 되는 바람에 인연이 끊어졌다. 또 55세(1933년)에 다시 재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간호사 출신 유년숙(유원숙?, 유숙원?) 사이에 딸 하나(영숙)를 얻게 된다.[참고로, 스님이 장가를 두 번씩이나 갔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재가승 제도를 강력히 주장했음을 알아야 한다.²⁾

여기까지는 정식 혼인한 사이니까 세속인들이 하는 풍습 그대로다. 그런데, 만해가 승려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서여연화(徐如蓮花)라는 분이다. 만해는 1907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해의 첫사랑 서여연화와 사랑이 시작된다.(만해는 1896년 19세에 속리사로 가출하여 여러 곳을 다니다 1907년 4월 15일 건봉사에서 최초 안거 수행에 들어감)

서여연화는 독실한 불자였는데, 부유한 선주(船主)였던 남편이 요절하는 바람에 줄지에 청상이 되었다. 미모의 젊은 망부는 그 슬픔을 달래고 남편의 영가가 극락왕생의 가피(加被)³⁾를 입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일(忌日)때마다 대규모 법회를 열었다 한다. 이때 만난 인연으로 서여연화 보살은 만해 선사를 사랑하게 된다.⁴⁾ 스님을 사랑한 미모의 청상 서여연화, 대중의 호기심을

2) 『처사 방촌 이베리아반도 여행기(5)』 도장식, 2013.2.5

3) 가피(加被) : 가우(加祐) · 가비(加備) · 가호(加護). 부처님께서 자비의 힘을 베풀어 중생에게 이롭게 하는 것.

4) 『한용운 평전』, 고은 지음, 민음사, 1975, 157~159쪽

자극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리고 만해는 만주의 독립군을 찾아 떠났다가 뜻하지 않게 일본군의 첩자로 오해를 사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의 충상으로 머리가 기울어 졌다. 1911년 겨울에 속초로 갔다. 오랜만에 만해는 서여연화를 만났다. 그와 그녀의 회정은 깊었다. 만해로서는 그녀가 원효의 요석이요, 의상의 선묘였던 것이다.⁵⁾

또한 철학자인 강신주님은⁶⁾

‘만해라는 범명에 걸맞게 한용운의 마음은 치열한 자기 수양으로 원만하고 고요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마음을 단번에 뒤흔든 ‘연꽃 같은(如蓮花)’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용운의 나이 47세, 그러니까 내설악의 백담사와 오세암을 오고가며 지냈던 1925년은 그의 인생에게 가장 극적인 해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때 그는 가장 강렬한 두 권의 책을 폭풍우처럼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는 6월 7일에 탈고한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이고, 다른 하나는 8월 29일 탈고한 『님의 침묵』입니다. 『십현담주해』는 선불교의 종파인 조동종(曹洞宗)의 수행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십현담(十玄談)』을 주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십현담주해』를 쓰면서 한용운은 스님으로서 가장 강렬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5) 『한용운 평전』, 고은 지음, 민음사, 1975, 178쪽

6)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한용운과 바르트’, 강신주 지음, 동녘, 2010

그 내막을 살펴보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권의 책을 쓸 때, 한용운의 곁에는 서여연화(徐如蓮花)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용운이 연화 아가씨와 외설악에 있는 신흥사(神興寺)에서 한 때 동거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한용운이 외설악으로부터 내설악으로 옮겨온 이유도 연화 아가씨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은 연화 아가씨가 한용운 본인을 스님이 아니라 자꾸 남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십현담주해』는 한용운의 치열한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극진하게 모시는 연화 아가씨로부터 발생한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심을 회복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특정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용운의 노력은 끝내 좌절됩니다. 마침내 그는 연화 아가씨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긍정해 버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님의 침묵』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용운이 스님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부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관념

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님의 침묵』을 통해서 만해는 서여연화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해버린다. 그렇지만 만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지도자이자 동시에 불교지도자였던 그는 자신을 폄하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리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님의 침묵』을 탈고한 뒤, 만해가 ‘군더더기의 말’, 즉 ‘군말’이란 서문을 붙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며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은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님의 침묵』 「군말」

“님만이 님이 아니다”는 만해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님이 서여연화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서여연화와의 만남은 혈기가 가장 왕성한 20대 후반(1907년

29세로 추측)에 만났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들의 사랑은 서여연화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해준 것으로 미루어 그들이 한 사랑의 그림이 『님의 침묵』 전반에 나타난 마음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의 시 전반에 드러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서사시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시를 읽고 느낄 때,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이 먼저일 것이다. 특히나 문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내면적인 상징이 무엇이건 간에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과와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를 창작함에 있어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그 시를 바라볼 때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만해 역시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렇다하여 그가 보여준 독립운동가로서의 올곧은 행동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승려로서 삶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님의 침묵』에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는 남녀 간의 애정을 전제로 한 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동국신속삼강행실 (東國新續三綱行實)에 간성의 인물

고성신협 이사장
한 창 영

1. 머리말

이 책은 광해군이 1613년(광해군 5) 찬집청(讚集廳)을 설치하고 유근(柳根, 1549~1627) 등에 명하여 편찬된 유교주의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엮은 18권 18책으로 일종의 국민 교화서이다.

책머리에 윤근수(尹根壽)의 서(序)와 기자헌(奇自獻)의 진진(進箋)이 있고 말미에는 유몽인(柳夢寅)의 도발(圖跋)이 있다. 군신, 부자, 부부로 대별되는 삼강(三綱)의 표본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에 얹힌 미담과 행적을 취사, 선택하여 1권은 충신, 2~9권은 효자, 10~17권은 열녀에 관한 기록을 수록했고, 각기 한 사람씩 소개된 이야기에 한 장의 관련 그림을 그려 붙이고, 한문으로 설명한 다음 한문과 똑같은 뜻의 한글을 덧붙였다.

원집(原集) 17권과 속부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속부는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인물 72명의 이야기를 부록으로 수록하였고. 성별, 나이, 계급, 신분의 차이 없이 충(忠), 효(孝), 열(烈) 삼강의 윤리에 적합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평등하게 뽑아 수록한 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대 규장각에 원본(原本)이 있고, 국립 중앙도서관에 1959년 영인본(影印本)을 보관중 이다.

조선시대 우리의 지역에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년도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 기록되는 효자, 정려 인물편이 태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의 『수성지(1633)』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두 권의 책을 비교 분석하여 고성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하고자 하였다.

2. 충신(忠臣)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1권에 충신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경투수(世卿投水)

향리(鄉吏)¹⁾ 손세경(孫世卿)은 간성군(杆城郡) 사람으로 임

진왜란 때 왜적(倭賊)에게 붙잡혔다. 적(賊)이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세경(世卿)이 이르길, ‘이것을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서 빨리 나를 죽여라’ 하고 드디어 물속으로 떨어졌다. 적(賊)이 끄집어 내 그를 죽이니 그 아들인 춘서(春瑞)가 10세인데 아버 시신을 끌어안고 주야(晝夜)로 통곡하였다. 지금의 조령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鄉吏孫世卿杆城郡人壬辰倭亂被擄於賊賊多給貨物世卿曰受此何用宜速殺我遂投入水中賊曳出剋殺之其子春瑞年甫十歲抱父屍晝夜號哭今上朝旌門



〈세경투수도(世卿投水圖)〉



〈손세경행실(孫世卿行實)〉

1) 향리(鄉吏) : 고려 · 조선 시대에, 한 고을에 대물림으로 내려오던 구실아치.

2) 『수성지(水城志)』

충신(忠臣) 향리(鄕吏) 손세경(孫世卿) 왜적(倭賊)에 붙들려 전해 보내던 문서를 내놓으라고 다그침을 받았다. 따르지 않다가 달아났다. 두 번 달아났다가 두 번 붙들리니 적(賊)이 화를 내며 찢어 죽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자손들에게 향리(鄕吏)의 부담을 면제해 주었다.

忠臣鄕吏孫世卿爲倭賊所執迫令傳送文書世卿不從而逃再逃再被執賊怒磔殺之事聞免其子孫鄕役

3. 열녀(烈女) 1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15권에 열녀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돌개우해(玆介遇害)

양녀(良女)²⁾ 돌개(玆介) 간성군(杆城郡) 사람으로 나이가 찼으나 시집을 가지 않았다. 왜적(倭賊)을 피하지 못했다가 산골 사이에서 적(賊)에게 붙잡혔는데, 장차 그녀를 욕보이려고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해 저항하였다가 드디어 해(害)를 입었

2) 양녀(良女) : 양민 집의 여자.

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良女芑介杆城郡人年長未嫁倭賊于山谷間賊執而將汚之終始
力拒遂遇害今上朝旌門



〈돌개우해도(芑介遇害圖)〉



〈정돌개행실(鄭芑介行實)〉

2) 『수성지(水城志)』

열녀(烈女) 조선시대 정씨(鄭氏) 이름은 석개(石介)로, 교생(校生)³⁾ 정희명(鄭希明)의 딸이다. 나이가 찼으나 시집가지 않았다. 임진왜란(壬辰之亂) 때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었지만 적(賊)과 마주치자 몸을 더럽히자 않고 죽었다. 이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3) 교생(校生) :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烈女本朝鄭氏名石介校生希明女年壯未嫁壬辰之亂奔竄山谷遇
賊不汚而死事聞旌閭

4. 열녀(烈女) 2

1) 천대음약(天代飲藥)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16권에 열녀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녀(良女)천대(天代) 간성군(杆城郡) 사람으로 원주(院主)⁴⁾를 지낸 김언룡(金彦龍)의 처이다. 남편이 죽자 피눈물을 흘리며 삼년(三年)동안 애통함을 다하니 예(禮)에 지나쳤다. 항상 이르길 ‘비록 어린 자식이 있으나 남편이 죽으니 무엇을 의지하겠나이까. 원컨대 남편을 따라 지하로 가고 싶습니다. 복상(服喪)이 끝나면 그 뜻을 뻗길까 조금 두렵습니다’ 하고 약(藥)을 마시고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良女天代杆城郡人院主金彦龍之妻也夫死泣血三年哀歇過禮常曰雖有兒息夫死何依願從夫於地下服闋年少恐其奪志飲藥而死今上朝旌門

4) 원주(院主) : 조선시대 역원(驛院)을 숙직(宿直)하여 지키던 벼슬아치.



〈천대음약도(天代飲藥圖)〉



〈천대행실(天代行實)〉

2) 『수성지(水城志)』

양녀(良女) 천대(天代) 원속(院屬) 김언룡(金彦龍)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상하였다.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맹세하고, 상례를 마치자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良女天代院屬金彦龍妻夫死衷毀誓以下從既終喪制飲藥自盡事聞旌閭

5. 맺음말

1613년 만들어진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과

1633년 『수성지(水城志)』 단행본에 나타난 우리 지역의 조선 시대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충신인 손세경은 관아에서 근무했던 벼슬아치로 보인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문서를 전송하던 세경으로부터 왜적들이 문서를 빼앗고자 하였으나 끝내 내어주지 않자 재물로 문서와 교환하고자 두 차례나 요구하자 끝내 물속으로 목숨을 던져 죽고자 하였다. 그러나 왜적이 물속에 있는 세경을 건져낸 후 성을 내며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정려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생 정희명의 딸 돌개(玆介)이다. 『수성지(水城志)』에는 석개(石介)로 기록하고 있다. 돌개는 제법 나이가 찼으나 시집가지 않은 채 있다가 임진왜란(壬辰之亂) 때 산골짜기로 달아나 피했으나 산골짜기에서 왜적(倭賊)에게 붙잡혀 그녀를 욕보이려고 하자 끝까지 저항하였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으로 두 편의 기록이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가정에 남편인 김언룡이 죽음에 이르자 삼년동안 수절을 지키다가 결국 약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간 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그린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과 같이 세 분의 행실에 관련한 기록은 그 이후에 여러 지리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조선시대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었고 인간적 덕목으로 삼강(三綱)’을 말한다. 신하의 왕에 대한 충, 자식의 어버

이에 대한 효와 더불어서 지어미의 지아비에 대한 열(烈)은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인물을 통해 온고 지신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록 시대가 지금과는 무렵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한 크다.





화암사(禾巖寺)숲길을 걷다



향토시료 연구위원
최 선 호

숲에서 전해주는 또 다른 언어들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맑고 신선한 숲의 향기를 가슴속 깊이 마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아마도 걷는 것이 가장좋은 건강요법의 하나일 것이다.

산, 바다, 호수, 계곡이 함께 펼쳐진곳, 화암사(禾巖寺) 숲길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화암사는 우리 고성군 토성면 신평벌을 조금 지나 태백준령의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神仙峰, 해발 1,212m)아래 천년고찰에 위치한 숲길이다.

이곳 산행을 하기전에 스쳐 지나가는 신평리 세계잼버리장은 77만4천여명의 광활한 녹색 들녘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기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991년 8월에 신평벌에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어 전세계 132개국에서 1만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는 하나”라는 캐즈프레이즈를 내걸고 꿈과 이상을 키우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배우는 대회가 있었던 명소이다.

화암사(禾巖寺) 입구에 다달으면 먼저 웅장한 금강산 화암사 일주문이 있으며,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 참나무 숲속아래 15여개의 부도군(浮屠群)이 잘 정돈되어 있고, 샘치골을 따라 산사입구에 숲길 안내표지판이 깔끔하게 잘 세워져있다,

여기서부터 산사로가는길, 등산하는길, 산림치유의길등 3가지 숲길이 있는데 약 4.2km(2시간소요)의 숲길 등산로(일명 : 고성갈래9경길인 신선만나리 가는길)이다.

이곳에 있는 천년고찰 금강산(金剛山) 화암사는 신라36대 흘恭王(해공왕)5년 진표를사가 769년에 창건하여 화암사 동남쪽에 있는 수(穗)바위 일원에서 역대 스님들의 수도장으로 이용하였다고 전해온다. 현재 화암사에는 대웅전, 팔각정(종각), 10층석탑을 비롯, 주변에 하늘을 찌를듯한 전나무와,보리수나무, 약수, 기암괴석(奇巖塊石)들과 희귀 동식물들의 보고(寶庫)로

전국에서 산악,등반객은 물론, 관광객,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숲길입구 왼쪽에 수(穗)바위란 계란오양의 바탕위에 왕관모양의 또다른 바위가 놓여있는데 윗면에 길이1m, 둘레5m되는 웅덩이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가뭄을 당하면 웅덩이 물을 떠서 주변에 뿌리고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있으며, 또 옛날 화암사 스님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수바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니 끼니때마다 그곳에서 지팡이로 세 번만 흔들면 3사람분의 쌀이 나온다하여 그대로 따르니 진짜 쌀이 쏟아져 나왔다.



〈화암사 수(穗)바위〉



〈신선대와 울산바위〉

어느날 객승(客僧)이 찾아와 이 사실을 알고 엉뚱한 욕심을 가진 객승이 그곳을 찾아가 지팡이를 구멍에 넣고 6섯번을 흔들

어 데니 나와야할 쌀이 않나오고 피(血)가나왔다고한다. 객승의 욕심탓에 산신(山神)의 노여움을 사서 그후 부터 수바위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수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절절하다.(생략)

또, 화암사 수바위를 지나 무성한 참나무숲과 소나무숲을 지나 오르면 신기한 바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기묘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의 두뇌를 발발시킨다는 “퍼즐바위”가 있다.

바위가 마치 장난감 퍼즐과 같이 겹겹이 쌓여 조각을 이루고 있어 마음속으로 퍼즐놀이를 하면서 자연의 기묘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연발한다.

또한 이곳에서 가파른 숲길을 지나 완만한 숲길 등산로에 오르면 시원한 동해의 동풍(東風)에 송글송글 쏘았던 등바닥과 이마에 흐른 땀방울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식어간다. 아! 이것이 걷는 즐거움이구나! 통쾌하기가 이룰데 없는 이시간 무엇에 비할까?

잠시 땀을 식히고 동남쪽에 위치한 아주 먼 옛날 천상의 신선(선녀)들이 내려와 고고한 달빛속에서 목욕을 하며 노닐었다는 너래바위의 자연 옥조들? 신선대(神仙臺)선인바위는 그야말로 오랜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뜨겨나가 기회하게 생겼다. 이곳까지 온 산악인, 걷기단체, 일반 관광객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무겁

게 짐이되던 배낭을 내동댕이 치고 찰칵 찰칵 카메라로 기념사진 찍기가 바쁘다. 정말 신선이 내려와 노닐만한 곳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곳은 사진애호가든 물론, 미술 작가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이를 배경으로한 울산바위와 외설악의 출품작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선봉 신선대 내려바위에서 조망되는 고성 신평벌, 속초시 전경〉

동쪽으론 속초시와 고성군, 망망한 동해의 푸른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남서쪽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과 울산바위(蔚山岩 해발873m)의 기묘절절한 풍광과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제와 속초,고성을 잇는 영동과 영서를 잇는 미시령쌍굴터널(1,296m)과 일흔다섯굽이의 옛미시령고갯길이 아스런히 그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악산(雪岳山)의 끝자락 고성과 속초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선봉 숲길에서 바라본 경관이야 말로 자연의

위용과, 예술성, 주변의 경승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이들이 고성을
찾아 몸과 마음을치유(healing)하고, 육체와정신건강(wellbeing),
서로의 의사와 감정 생각(communication)들이 소통되었으면
한다.





까치봉 곰 화진포에서 숨겨

전, 공무원
신 현 필

1. 곰 마을에 나타나

나라에 암운이 걷히지 않고 이씨 조선이 기울어져 가는 무렵 어느 초여름 날이다. 늦은 모내기도 끝나고 좀 한가한 때라고 하나 밭일과 곧 애벌감을 매야하고 아낙내는 길쌈을 해야한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까치봉 밑 간성군 현내면 건달리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막감마저 느껴지던 너무나 고요한 마을에 곰이 나타난 것이다. 윗마을 입구 큰 길가 헛터에 서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 누워있었다.

당시 큰길이란 두 바퀴가 달린 우차가 마을과 마을,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여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며 산골 농촌에서는 수소는 성질이 거칠어 암소가 끄는 ‘발구’를 운송수단으로 이

용했다. 꿈은 하루가 지나도 그 자리에서 꿈쩍 않는다. 언제 마을로 들어올지 두렵고 영농은커녕 서로 왕래도 두절된 상태다. 집밖을 나가기도 무서웠다.

웃 마을은 20여호가 웅기종기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전주 이 씨 집성촌이다. 정착한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임진왜란 때로 추측된다. 아랫마을은 험터서 내려가 오른쪽 산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 골진 외딴 곳에 청송 심씨가 5가구 남짓 있었고 박 씨와 김 씨가 몇집 된다. 또 하룻밤이 지났다. 동사 종각(종대)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사로 모이라는 집회통지다.

농촌마다 동사가 있었고 마을 머슴 구실을 하는 이가 있어 “동장”이라고 불렀다. 동사나 동사 옆에 집을 지어 주어 살게 했다. 동장은 마을 공동작업 이나 역부, 대청소, 부락행사가 있을 때 마을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고 집집마다 안전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보수는 구장모곡 때 같이 모곡하여 1년 식량을 보충하게 했다. 동사는 동회 외에 부락에 큰 일이 있을 때 전 주민이 모여 잔치도 하고 후에 야학 공부방으로 크게 활용 되기도 했다.

2. 꿈을 부락 밖으로 추방

주민들이 동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 했다. 병든 꿈이 틀림없다

는 결론이 내려졌다. 병들어 강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 보다 마을에 내려와 구원을 받게 되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는지 모른다. 주민 대부분은 맹수는 죽여 화를 없애지는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 약 10년 전 40세 이상 노인 6명이 눈 내린 겨울날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막다른 곳에서 표범을 만나 그 범을 잡은 적 있었는데 그 때 참가했던 이씨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범박골”(표범을 잡고 지은 골이름)에서 범을 잡은 그 해 봄 재앙이 미쳐 갓난아기와 어린 아기 7명이 죽은 일을 기억못하느냐고 꾸짖었다.

그 노인은 청장년 10명으로 결사대를 구성 내일 아침 일찍 창으로 위협하여 부락경계 밖으로 몰아 내자는 것이다. 쫓겨 가도 절대 산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산골 무락에는 집집마다 창이 비치 돼있었다.

맹수의 습격을 막고 눈이 내리면 멧돼지 사냥을 위한 필수 무기인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선출된 결사 대원이 창을 들고 모였다. 곰을 건달리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작전을 짜고 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곰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일어섰다. 결사대는 거리를 두고 창으로 위협하며 고함을 질렀다. 곰도 이빨을 들어내고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으르렁 거렸다.

더 가까이 접근하며 위협하자 곰은 대적할 기세를 잃고 등을

돌려 큰 길로 나와 천천히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쫓겨 가다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큰 길로만 갔다. 이 들은 천천히 걸어
 꿈이 부락경계를 넘어 마직리 구역을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도
 그곳에 오래 머물다 돌아섰다.

3. 쫓기는 꿈의 분풀이

꿈은 길을 따라 물을 건너고 고갯길을 넘으며 힘겨운 발걸음
 을 옮겼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천천히 걸었다. 좀 넓은 들이
 나타났다. 산자락 끝에 물레방앗간이 있고 넓은 길이 마을로 곧
 게 뻗어 있다. 길옆으로 많은 집들이 보인다. 사람을 만날까 겁
 이 났다. 마을 아래로 약간 넓은 들이 있어 들 아랫길을 따라
 나갔다. 동쪽 앞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가로 막고 산 밑으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 옆으로 큰 길이 있었다.

굽이쳐 흐르는 강 건너편은 경사가 심하여 물을 건너도 올라
 갈 수 없었다.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보니
 나무다리가 보이고 다리 건너편에 골짜기가 보였다. 이곳을 다
 릿골이라 한다. 다리를 건너 길 양쪽으로 논이 있었다. 조금 가
 다가 길 오른쪽 논에서 혼자 애벌감을 매는 젊은 농부를 발견하
 였다. 꿈은 논에 들어가 청년 앞에 섰다.

청년은 얼굴을 들어 쳐다보는 순간 논바닥에 주저앉고 말았

다. 곱은 앞발 하나로 청년의 가슴을 짓누르고 얼굴 왼쪽을 물어 씹어 놓았다. 청년은 “나는 너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애원하듯 소리쳤다. 사실 청년은 어릴 때 다친 한쪽다리가 무릎을 굽었다 폄다할 수 없는 뻥장다리인 불구자 였다. 걸어 다녀도 뛸 수 없는 처지다. 걷는 것도 불편한 상태다.

쫓기는 분풀이로 만족하였지 사람들이 쫓아올까 두려웠던지 더 해코지 않고 자리를 떠나 길로 나가 길을 가로 흐르는 큰 도랑을 건너 낮은 고개를 넘어 갔다. 서 청년은 피가 흘러 떨어지고 얼굴 살가죽이 찢겨져 뼈가 드러 난채 뻥장다리를 끌며 마을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외쳤다. 집 부근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 와 등에 업고 집으로 갔다.

4. 곱 화진호에서 숨지다.

곱은 다릿골 낮은 고개를 넘어 안골 산 비탈길을 걸어 산골짜기를 벗어났다. 보지 못한 다른 천지가 나타난 것이다. 동쪽에 바다가 보이고 남쪽에는 산과 호수가 보인다. 산비탈길을 걷고 산등을 넘어 공수골을 지나 종시리 고개를 넘고 열산 고개를 내려갔다. 산줄기가 뻗어 있어도 평탄한 길이다. 산자락 끝에 집들이 보인다. 모정을 지나 곱이 돌아 중두루벌로 흐르는 소하천을 건넜다. 오현면 구역에 들어섰다. 달안리 뒷산길을 걸어

낮은 고갯길을 넘었다.

멀지 않은 앞에 낮은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고 끝자락에 봉우리가 호숫가에 닿아 있었다. 여기가 화포리와 월안리의 경계다. 꿈은 이 봉우리가 은신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여기고 일생을 끝낼 안식처로 정하였는지 모른다. 빠른 걸음으로 산줄기를 따라 봉우리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때 건너편 골짜기 논에서 혼자 애벌감을 매다 아내가 함지박에 이고 온 점심을 먹고 그늘 진 곳에 도롱이를 깔고 피곤을 덜래고 낮잠을 잤다. 자다 깨어 기지개를 펴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외칠뻔 했다. 낯생 처음 보는 몸집 큰 꿈이 길 건너편 봉우리 숲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본 것이다. 김메기를 중단하고 마을로 왔다.

이농부는 윤씨 청년을 찾아가 알렸다. 윤씨 청년은 상황판단이 예민하고 어려운 일도 술선 해결하는 정의롭고 기개 있는 청년이었다. 윤씨 청년은 구장과 의논하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소집시켰다. 화포리는 윤 씨와 임 씨의 집성촌으로 70여 가구가 부촌 답게 화합이 잘됐다.

꿈을 산으로 몰아 내자는 이도 있었다. 윤 청년은 꿈이 민가가 있는 곳에 내려온 것은 까닭이 있으나 맹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침으로 살려 둘 수 없고 산으로 돌아갈 꿈이 아니라고 했다. 호수로 몰아 넣어 살해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됐다.

다음날 아침 삼지창과 쇠스렁까지 들고 40여명이 모였다. 10명의 장정이 봉우리 곶을 호수로 몰아 넣는 특공대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호숫가에 배치 시켰다. 봉우리 호수쪽은 비워두고 애워싸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며 좁혀갔다. 곶은 숲에서 쫓겨나와 갈 곳을 찾았으나 호수 밖에 빠져 나갈 길이 없었다. 호수로 뛰어 들어 갔다. 헤엄 칠 힘도 없었다. 진퇴양난이다. 곶은 호수에서 몇 번 육지로 올라 올려고 허우적거리다 끝내 죽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화진호에서 일생을 다했다.





東洋思想과 杆城郡

(한문학)

어 재 동

1. 동양사상과 한국인

이 지구상은 동서양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본질과 성향을 가지고 존재한다.

물질과 황금만능의 서양과 정신문화를 중시하는 동양이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존재한다.

그 주체성을 가지고 조상의 얼과 현실의 나와 미래의 자손에 까지 연계한 사상이 동양사상 이라고 볼 때 그 중심에 성현들이 끼친 영향은 큰 교훈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도, 즉 도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공(孔) 맹(孟) 사상에 인의예지를 골격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하고 왕척직신(枉尺直尋)이란 글이있다. 자애를 위해 몸

을 덜질수 있는 용기와 한자(尺)를 굽혀 여덟자를 편다는 말이 있다.

즉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수 있다는 말인데 노장(老莊)사상의 대기만성(大器晚成)과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해 낮은데로 임하소소 하는 말은 작은 물방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뭉여 심해를 이루어 수평을 이루어 다음 높은곳으로 향한다는 뜻으로 어 떤 인위도 없는자연 그대로의 낙토(樂土)를 일컬음이다.

우리 선대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반추해 보며 숭고한 뜻을 후대(後代)에게 잘 전하는 것이 현실에 처한 우리들의 사명이라 하겠다.

우리의 예법에는 관례, 계례, 혼례, 제례(祭禮)가 있는데 그중 한가지인 제례에 관하여 보면 제사란 살아 계실때에 다하지 못한 봉상을 소급(遡及)하는 것이며, 다하지 못한 효(孝)를 이어가는 것이며, 윗대 조상의 3,4대(代)는 우리의 주위에 존재해 생전의 기억을 되살려 교간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난 도올 김용옥 선생도 TV강좌에서 역설한 말이 생각난다, 자비와 박애 좋은 사상이다.

위선 친친이애인(親親而愛人), 수기이안인(修己而安人)이라 하는 말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타인을, 내 몸을 먼저 닦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서양의 문물이 봇물처럼 밀여와 여과도 없이 박아드려 개인 주의가 팽배하고 황금만능인 듯한 흐름에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며,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도륙(屠戮)하는 흉측한 보도를 접할 때 너무도 기막힌 현실에 그저 씁쓸하기 그지없다.

경로효친(敬老孝親)을 바탕으로 정도로 살아온 옛 선조들의 귀감들은 이야기가 넘쳐 흘렀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이있다 즉, 까마기가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뜻인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금수와 비교가 되겠야는 것이다, 오륜(五輪)에도 부모가 임금보다 먼저이며, 선대들의 숭고한 깊은 뜻을 후대에게 잘 계승하는 것이 현실에 처한 우리들의 사명이라 하겠다.

2. 참 한국인의 예절

한국인에게서 예의를 빼면 남을 것이 없어보인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칭 부푼 자존심을 가졌다, 냉정히 보면 자가 자찬이다. 인간이 일상을 통하여 남자는 약관(弱冠)의 나이에 관례를 치루고, 여자는 15세에 계례(笄禮)를, 여자가 처음 비녀를 머리에 꽂는 예식을 치르고, 혼례를 치르고, 명이 다하여 상례를 치르고, 저승에 가셨을 때는 엄

숙히 제례를 행한다.

예의 으뜸은 효(孝)과 첫 번째이다. 중국에서 오형삼천죄(五刑三千罪)중 그 으뜸이 불효이다.극형 5섯가지중 삼천가지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첫째가 불효(不孝)라고하니 그 비중을 헤아릴만하다.

옛 성현(聖賢)들의 예는 견고하며, 교이인륜(教以人倫)에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이있다. 그 실예로 현인 퇴계(李)선생과 , 율곡(李珥)선생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율곡선생은 퇴계선생보다 35세 연하였다, 퇴계선생때에 율곡선생이 방문했는데 퇴계선생은 화동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출어람, 후생가외(後生可畏)라 했다. 이같이 어린나이의 율곡에게 두렵다는 표현이다, 나이어린 후진이라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이 대하였다는 뜻이다.

정말 오늘날에는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가인들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이라 하겠다. 그후 퇴계선생의 서거소식을 접하고 율곡은 당시 경기도 서북쪽에 있는 율곡이란 곳에서 그의 비보를 듣고 맨땅에 자리를 펴고 경북 안동을 향하여 4번절을하고 애도했다는 얘기가 후대로 전해오고 있다.

이 얼마나 상경하애의 표본인가? 이는 어른과 아이의 질서에서 공경하고 자애하는 도(道)로서 시사하는바가 크다하겠다. 정신적인 양식은 젖혀놓고 문물에 도취되어 굴욕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꼴이 돼서는 안되며, 선대(先代)와 후대(後代)가 이어지는 미풍양속(美風良俗) 그 중심에서 금일아행적(今日我行蹟),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서산대사 작은 백범 김구선생이 즐겨 읽었다는 구절이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 내 뒷사람의 길이 되드시 우리의 육신도 싸이클이리라! 어느 때에는 시원상쾌하고, 어떤때는 짜부등한 느낌이, 인생도 그같이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드시 너무 금욕에 치우치면 본연의 중심을 잃고 벗어나 탈이 생기게 되는법,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선대들의 훌륭한 청백리 정신을 반추해 보며 숭고한 뜻을 후대에게 부끄럽 없이 남겨 주어야한다.

3. 동양사상과 우리들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으리의 삶에 큰 덕목중에서 여러 행태가 있는바 도리(道理)를 들 수 있다.

살신정신의 정신으로 살다가 일제의 만행에 백절불요의 표본으로 삶을 마감하신 매천(梅泉)황현 선생이나 박재상의 정신 사상을 엿볼수가 있고 세종대왕의 무렵에서 재물을 부렸다는 영동인으로 살다가 설악산 오세암에서 생을 마감한 생육신 김

시습 농어학이 편에 학이 시습지에서 시습이란 이름을 딴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은 유학 선비들이 아니면 행할수 없는 동양사상의 본모습이라 하겠다.

향리 고성땅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바가 큰 것은 성현들의 말씀에 예를 먼저 알고 그 바탕위에 학문에 임하는 청정한 가르침이 있다. 이역시 인성이 가추어진 후에 학문에 임하라는 말이다.

조금더 얘기해 보면 강릉에서 정선으로 가는길에 노추산이란 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참척(慘慼)을 당한 모친이 크고작은 3000개의돌로 돌탑을 쌓은 곳으로 율곡선생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였다고한다. 노추(魯鄒)란 아마도 공(孔)맹(孟)을 품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현실 교육은 그러하지 못하다. 학구열은 고사하고 돈벌이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수단의 교육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

시험 공부에만 열중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굴지회사에 입사하여 사오정에 시달리다 50세에 퇴직한다. 백세시대라는데 과연 그 일생은 뻥하다. 인성이 가추어 지지못한 인생의 질이란 명약관화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이점을 중시하여 교사들이나 교육행정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 바야한다.

인성을 살찌우는 것이 인간교육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교육 문화로서는 질서는 없고, 장유유서라는 글귀도 퇴색되어 갈대

공수래공수거라는 얘기가 실감난다. 이 시점에서 라도 고쳐 나가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훗 날에 그 수습이 안될 때 그때 책임은 누가 감당하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염려의 충언이다. 정신적인 지주 인도주의란 성현(聖賢)의 가르침 삼강오륜의 맹자사상(孟子思想)과 삼강렬 팔조목의 증자사상(曾子思想) 강령에 그 정신으로 잘살아 왔으나 현실은 황금만능(黃金萬能)과 이기심에 이끌려 도리와 예절은 간 곳이 없고 정신적건강, 옛정취를 반추해 보며 과연 나는 어떤 임무를 충실(充實)히 하는가를 뒤돌아 볼때다.

4. 의인의 자취와 간성군

앞서 열거 했지만 동양사상(東洋思想)은 정신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내용을 반추해 보는 역사이다. 효경(孝經)에 관한 것으로 반포지효(反哺之孝) 인간이 금수와도 비교되는 부분으로 까마귀는 어미가 노쇠해지려는 먹이를 물어다 연명해 주는 효조이며, 반의지희(斑衣之戲) 노래자(老來子)가 70세에 셋동옷을 입고 노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효행이며, 친친이애인(親親而愛人) 백유(白榆)의 모친이 노쇠하여 때리는 매가 아프지 않음을 슬퍼함이니, 자효쌍친락(子孝雙親樂)이면 가화만사성(家和萬事

成)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자식이 효도하여 양부모가 즐거워 할 때 쓰는 말이다. 갈등(葛藤)에는 고부간갈등, 사회적갈등 등,갈(葛)자는 칙갈자, 등자(藤字)는 등나무등자로서 칙닝클은 반드시 오른편으로 감기고, 등나무 Ning클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감겨 오라간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나온 어원이 갈등인데 이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이다.

오늘의 의인(義人)은 택풍당(澤風堂) 이식(李植)선생, 이씨 조선 4대문장가이자 사상가로서 1631년 신미인조9년 간성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양사자를 창건하고 속칭 군학당(郡學堂)읍, 면자제 강학의 처소였다.

1632 인조10년 임신 현감택당 이선생 부제학으로 체귀하였다. 간성군 현감으로 재임시 이 고장 유림들에게 공맹사상을 깊이 전수하고 현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호감을 함몰에 받았다.

2500년전 성인 공자의 수제자는 안회(연)이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증자는 하나를 이르면 둘을아는 성인들이였다.

어재창 택당 이식선생의 수제자는 필자의 9대조 미제공(眉齋公) 삼형제가 선생의 문하에서 학업을 받았고, 8대조께서는 택당선선의 아드님 외제(畏齊)선생에게 학문을 받아서 세의(世誼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간성군 땅에 입간한 성씨 중에서 魚, 尹, 鄭, 崔라는

성씨가 두각을 나타냄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택당 이식선생의 거사비를 일제하 진부렬 공사때 소실됐다가 1981년 3월14일 간성향교 전교 김경명씨가 발견했다.

김경명씨가 간성 고사를 어해운에게 물었다. 단기4317년 갑자 택당 이식선생 거사비를 개수하여 후학 함중 어해운 서(叙)하였다.

이 고장에 훌륭한 의인 택당 이식선생을 370년전에 보내주신 고시대 주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택당선생의 후대(後代)는 경기도 안평군에 있는 양동에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사당과 묘소 등을 잘 보존해 가꾸고 조상의 얼을 질살피는 가문(家門)으로 칭송이 잦다.

간성군(고성군)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정신적인 양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택당 이식선생의 고마움을 앎지 않고 간성현의 자긍심을 차제에 높여야 겠다.



미소(微笑)



전, 40대대장
김 정 규

얼마 전 딸이 오래 만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 갓 돌이 지난 외손녀와 함께. 외손녀는 잘 걷지도 못하면서 뒤통거리면서 뛰어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긴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서 노래하며 재롱도 피운다. 그러다 우유를 먹고 지쳤는지 스르르 잠이 든다. 얼마를 지났을까? 웅알이를 하는가 싶더니 잠이든 채로 빙긋이 웃는다. 아무런 근심 없는, 전혀 때 묻지 않은, 한마디로 천사의 미소 같다.

미소微笑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미微는 ‘작다, 숨기다, 몰래’라는 한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소는 표현이 절제된 ‘작은’ 웃음, 웃음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모호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손뼉을 치면서 웃어야 할 정도의 큰 웃음인 박장대소拍掌大笑와는 정 반대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강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미소 즉, 표현이 절제된 ‘작은’ 웃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다. 미소를 통한 우리의 윤택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기가 저질러대는 실수를 부드러운 미소로서 용납하고, 다 큰 자식이 항상 말썽피우지만 꾸중과 질책이 아닌 용서의 미소로서 표현하고, 남편의 힘든 바깥 생활을 부드러운 미소로서 위로하고, 남편의 수고함을 사랑스런 미소로서 격려하고, 아내의 불평과 잔소리와 어리광을 미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사회의 여러 유형의 공동체내에서도 잘못했을 때 짓는 ‘쑥스러운’ 미소에, ‘괜찮아’라는 미소로 답할 때 인간관계는 삭막해지지 않는다. 과장과 허세가 만연한 사회에서 박장대소보다는, 절제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여유로운’ 미소가 더욱 돋보이기도 하다. 조롱하는 미소, 경멸하는 미소는 사회를 각박하게 만든다.

또 다른 형태의 미소인, 웃음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모호한’

웃음은 모나리자의 미소와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대표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는 그 인물이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슬픈 미소인 듯하면서, 한편으로는 무표정한 듯이 보이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 신비한 미소를 띠고 있다. 한마디로 모나리자에서 그려진 인물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무표정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78호, 83호)에서 보이는 잔잔한 미소는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준다.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세상에 찾아와 부처가 되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는 보살이다. 그 미소는 사유思惟를 통한 미륵보살의 깨달음의 미소라고 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친근하고 온유하면서도 신비하다는 측면에서 모나리자의 미소에 견주기도 한다. ‘사유’하는 조각상이라는 면에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영혼들을 내려다보며, 인간의 숙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견주기도 한다.

표현이 절제된 ‘작은’ 웃음’이건 모나리자와 반가사유상의 ‘모호한’ 웃음이건 미소는 ‘절제’된 웃음인거 같다. 그러나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외손녀의 입가에서 묻어 나오는 잔잔한

미소는 절제된 웃음이 아니다. 농민이 땀을 흘리면서 수확한 벼를 들고 하늘을 보며(인간이 아닌 하늘에 감사하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의 모습도 절제된 웃음이 아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하지만 교통정리나 풀베기 등 단순작업 정도는 할 수 있는 신도가 있다.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한다. 분주하게 일을 하는 그에게 조그만 칭찬이라도 해주면 활짝 웃는다. 앞 이빨이 빠진 그의 입가에 짓는 미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웃음 짓는다. 그것 또한 절제된 웃음이 아니다.

이와 같이 아무 뜻도 담겨 있지 않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나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외손녀와 농민, 그리고 우리 교회 신도의 ‘순수한’ 미소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한마디로 미소는 내가 기쁠 때 나는 웃음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웃음인 것 같다. 내가 기뻐서 웃음소리 내는 박장대소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는 미소가 넘쳐나는 사회가 될 때 이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 같다.



빛바랜 사진들

▶ 그때 그 시절



〈진부령 정상(흘리)1960년도, 진부령미술관 제공〉



〈명파(明波)돌다리 놓기(88년도 민속경연대회 최우수상)〉





고성 명태 축제의 꿈/ 떠나간 명태 다시 회귀하려나



(시인)

최 인 철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동해안 해당화 곱게피고 지는 명사십리 가는 길 목에 위치한 거진,대진항은 예로부터 명태,오징어, 도루묵 등 수많은 어종이 풍어를 이룬 소문 난 고장이다. 그 중 가장 담백하고 맛깔나는 어종은 명태인데 축제를 시작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천으로 깔린 명태로 할복 체험, 무게 달기, 명태요리 시식하기 등으로 항구에는 온통 웃음과 풍어가가 흘러나오고 명태는 손수레와 용달차등으로 셀 새없이 용처에 따라 유통되며 외래 관광객과 함께 지역경제는

대호황을 이뤄 탄성은 절로났다. 명태는 한류성 어종으로 여름에는 해저 200m 이상에 겨울철에는 산란을 위해 육지 근해로 나온다. 수온은 0.8도가 적정 온도이나 동해안 수온이 지구 온난화 현상등으로 평균 1~2도 상승하고 어구가 발달된 일본등 주변국들의 30cm 미만 치어 남획으로 명태는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으며 명태 어획에 대한 통계의 의미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명태 어획량을 살펴보면 2006년 약 6톤, 2007년 667kg, 2008년 300kg(*1마리 200g 추산/1,500마리)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 무렵 명태축제 홍보차 민선 고성군수를 두번이나 역임중에 있던 故, 황종국 군수는 군의회 의장 등 10여명을 대동하고 '재춘 고성향우회' 임원들을 찾은 만찬자리에서 '명태 축제를 위해 배 가진 어민들을 동원해 명태를 잡으라 했더니 7마리 잡은게 전부야' 아쉽다는 말 끝에 모두 어이없다는 듯 웃고 말았다.

이 때부터 명태축제에서 명태는 주 어종으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으로 바다, 겨울을 넣어 명태 축제라 하지 않았나 기억된다. 명태는 조선조 중엽 바다에서 이름 모를 고기를 잡았는데 담백하고 맛이 좋아 이름을 지으려던 중 함경도 명(明)천에 사는 태(太)서방이 잡았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문헌은 전해지고 있다. 원양 수입 명태는 러시아, 일본, 미국산 등 잡은 선박 국적에 따라 명명되는데 2008년에 22만톤

수입을 시작으로 99%이상 전량 수입산에 의존한다. 부산항을 경유 수입된 명태는 크기에 따라 3~4등급으로 거래되며 한 상자 평균 36,000원 가격으로 전국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되고 있다.아직도 거진항 입구에는 명태를 소재로한 '고성 랜드마크 공원'이 있는데 낭만의 파도를 도약하는 명태를 어부가 켜안고 있다. 구리빛 얼굴의 어부가 운전하는 만선의 통통 배가 아침 햇살을 가르며 귀항할 때면 흰 갈매기 떼가 환영하고 밤새워 기다린 어부들의 가족이 환호하며 희망찬 아침을 연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태는 명태의 본거지 거진항이고 명태없는 항구에서는 배가 바다를 가르지 않는다.

국내산 명태없는 정든 항구를 애써 떠나지 못하는 어민들은 울고싶지 않아도 두번 운다. 한번은 국민의 고기 명태가 잡히지 않아 서글퍼서 울고, 두번째는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것을 진정성이 없다며 언론이 과장보도하니 억울해 또 운다. 그럴 때마다 가슴에 사무치는 서러움은 안 잡히는 명태가 어민의 탓인가? 수입산 명태는 명태가 아니더냐? 아직도 명태잡이 주낙 그물은 어민들의 창고에 꼭꼭 쌓여만 있다. 명태잡이를 포기한다고 행정당국에 주낙 그물을 신고하면 수십만원짜리 땀과 눈물로 점철된 그물이 고작 2만 5천원에 보상된다니 억울 해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창고에 방치하겠다는 어민들의 까맣게 타 들 어가는 가슴은 누가 위로하라!! 떠나 간 국민의 고기 명태가 다

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움 만 커져 간다.

지역경제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하루 속히 이념의 벽을 헐고 용서와 화해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 부활로 고성군의 경제활로가 활짝열려 불꽃으로 타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글쓴이

시인. 최인철 (전, 인제 경찰서장, 강원도 재경향우회장, 한국경찰문학중앙회장, 현, 월드비전 세계시민강사 연합회장, 강원도 노인인권보호기관 인권감시단장, 민리민안 국민연합 강원본부 고문)



천하에는 다섯가지 악이있다.



전)초등학교 교장

류 경 렬

천하유대악자오이니 심역이힘이오 오행벽이견이오 언위이변
이오 기추이박이오순비이택이니라』

천하에 큰 악이 다섯이 있으니 그 하나가 마음이 역하고 험하며 둘 은 행동이 경박하고 고집이세며 셋은 말이 거짓스럽고 자주 바꾸며 넷은 기억이추하고 경박스러우며 마지막으로 잘못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말이 유창하고 윤택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니라. 노나라 정공 14년에 공자는 대사구(大司寇: 司法長官)가 된 지 7일째 되는 날 정치를 문란 시킨 소정묘를 죽여 그 시체를 3일간 궁정에 내걸었다고 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

은 소정묘를 인망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자의 행위를 할난한즉 공자는 도둑 이외의 大惡 다섯 가지를 들어 소정묘는 5대악을 겸하고 더구나 徒黨을 짜서 대중을 현혹시켜 체제에 반항하는 조직을 만든 소인의 궤옹이므로 주살함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淸나라 말기의 양계초는 이것은 공자의 일대오점이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논평하였으나 근년의 양릉귀 등의 설에 의하면 소정 묘는 당시 신흥지주계급을 대표하는 정치가이며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제의 회복을 기도한 반동 사상가임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자는 이들 5대악 중에 제일 큰 죄악은 나라에 도당을 만들어 나라국민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나라 국민의 정신과 의식을 분열하게 하여 나라의 국권을 흔들며 국민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는 하지 않을지언정 어지럽게 하는 죄가 제일 크다 하였다. 어리숙하고 어눌한 한 국민의 갈 길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주권조차 찾을 줄 모르고 권력자의 명령에만 무조건 복종하는 국민이 아니던가 말이다. 우선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원초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으며 나라의 존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방향으로의 사상과 이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봄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나라의 이념과 사상을 저버리고 자기네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을 온 국민에게 주장하며 나라의 국위를 흔드는 행위는 매국이요 국민 말살의 행위임이

기에 공자님도 그 죄가 가장 크다고 하신 게 아니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나라의 대사구 관직에 봉임 하시면서 정치를 문란 시킨 소정 묘를 죽여 그 시체를 3일간 궁정에 내어 걸어 그 죄를 응징하여 만국민의 본보기로 하였다고 하지를 않았는가? 지금 보면 너무 심하다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나 그만큼 그가 저지른 죄악이 큼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가 사악하고 국기를 문란 하게한 대죄라는 것에 크게 다스려야 한다며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닐까하는 조심스런 생각이다. 악에서 벗어나 나를 다스리는 일에 진입된다면 이는 선으로 가는 길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나를 다스려 자아를 찾는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나 불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해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며 한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건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송하면 상대는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에 대하여 호감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아부와 다름없는 것이며 또한 상대를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알뜰한 술책이거나 소득을 얻어 내

려는 아침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칭찬과 아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칭찬은 진심이 뒷받침된 것이며 따라서 칭찬을 할 때 칭찬 그 자체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영특한 척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우선 영특한 척 행동하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기 쉽다.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열심히 생각해 보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 건강 가정 가족의 사랑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고마워한다면 불행에 괴로워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의 분명한 유형을 알게 되고 더 많은 행운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단정하고 소박한 외모는 당신이 얼마나 유행을 잘 따르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색상이나 잘 어울리는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단정하고 매력적으로 차려 입으면 보는 사람들의 감각이 적극적으로 자극을 받아 당신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자기 파괴적인 감정은 질투심이다. 질투를 하면 스스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망실하게 된다. 질투심이 많아 보이면 당신은 결코 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질 나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행운에 배 아파하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다. 삶이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전진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락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오늘 너무 힘들다면 내일은 더 밝은 날이 옳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숨 자고 나서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쉽게 풀리기도 한다.

고기는 씹어야 제맛을 알 것이고 말은 해야 말의 구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할수록 늘고 배려는 감동을 주며 낯선이는 자주 대할수록 친근해집니다.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방문입니다.

손길의 접촉은 온기를 주어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 할 수 있고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웁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

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답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염도 3퍼센트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퍼센트의 고운 마음씨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한 습성이 아닐까요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고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복(福)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德)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덕 있는 이를 따르고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대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먼저 남을 대우해주며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돈을 너무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되며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災禍)가 따르고 아껴 쓰지 않음으로써 집안을 망치며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는 것이니라.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오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씨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슴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삶을 성실히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악에서 벗어나 선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현금에서 보이는 현실에 들어가 볼까요? 5,000여 년 전에 중국의 머나

먼 세상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볼 수가 있으니 정말로 한심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는 통탄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지 않는가 말이다. 공익을 버리고 이웃을 외면하는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속 시원하게 열어 헤쳐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속내에 숨어있는 형체를 정말로 보고 싶다. 우리국민 모두도 이러함을 깨닫고 5악에서 벗어나 선과 어지러움을 가려 실천하는 의식있는 참인간으로 사회에 임하기를 바라며 이에 한층 발전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극악한 죄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된 사회를 이루는 첨병으로서의 자리를 잡기를 기원한다.





〈수 필〉

연어의 꿈

고성문화회장 (시인)

황 연 옥

황금물결 가득하던 들녘이 허전해졌다.

추수를 마친 논엔 그루터기만 남았다. 벼를 베 논에도 생명력이 담겨 있다. 논에 들어가 가만히 그루터기를 들여다보면 흙냄새가 풍겨오고 계절 마다 다른 농사이야기가 들려온다. 아버지의 땀 냄새,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농부들의 인내와 보람의 애환이 그 안에 향기로 담겨 있다. 나는 이 냄새가 그리워 고향에 돌아왔다.

문득 오래 전에 쓴 ‘귀향’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고향 가던 날
하늘에서 매화꽃 같은 눈발이 날렸다
낮 익은 산속 길
수런거리는 소나무 숲 사이로
촉촉한 어머니 기도소리가 들려오고
푸근한 불빛에
홍조 띤 마음이 설레인다

외로워진 땃돌 위에
땡그러니 놓여있는 신발 한 켤레
맨발로 나오시는
어머니의 머리 위로
그리움이 서리서리 백발 되어 나부긴다

해묵은 고가
뜰 안 가득 넘치는 포근한 미소들
일상에서 접했던 날개가
하늘을 향해 깃털을 세우고
정겨웠던 동심의
맑은 숨소리가 들려온다

〈귀향〉 전문

내가 이 시를 쓸 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었다. 그래서 고향집에 올 때는 언제나 마음이 설레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길로 통이를 지나 마당에 도착해 그리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면 맨발로 서둘러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집으로 나는 귀향을 하였다.

아버지는 근동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부지런한 농부이셨고 어머니는 그 남편과 함께 많은 들일을 하는 농촌아낙이었지만 꿈이 있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에게 장래의 꿈을 꾸게 해 주셨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배워서 훗날 그 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

옷을 사서 몸을 치장하거나 먹는 데 쓰는 돈을 아끼셨지만, 우리들 책 사주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어려운 1960 년대에 오빠와 나에게 ‘학원’이라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월간 문학지를 구독하게 해 주신 분이시다.

그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훗날 나는 문인이 되었다.

시와 수필을 쓰고 동화를 쓰며 현직교사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글쓰기를 가르치며 꿈을 나누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뒤 그 꿈을 고향 문우들, 후배 청소년들과 나누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내려와 보니 고향은 예전의 그 모습은 아니었다. 외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예전 풋풋하던 마음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었다. 손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순수했던 예전 정서와는 달리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이외에는 타인들을 배척하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았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예의를 다하였고 손아래 사람들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그들이 하는 농사일이나 그 밖의 다른 전문성을 존중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배움을 요청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가끔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사 드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마을 분들과 동화 되었고 애경사도 참여하게 되었다.

가끔 외출하여 우리부부가 집에 없는데도 호박이나 가지 같은 야채를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마을 분들이 계신다. 고마움으로 마음이 훈훈해지고 입가엔 감사의 미소가 저절로 감돈다.

나는 고향에 돌아올 때 언어처럼 꿈이 있었다.

언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어디에서 자라, 어디를 거쳐, 어디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지도 알고 있다고 한다.

수 천 키로 미터를 헤엄쳐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 위험을 마다 않고 위로 올라가길 주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어는 고향에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그 알들은 3개월 정도 지나 치어가 되어 먼 바다로 나갔다가 훗날 어미가 되어 다시 고향을 찾는다. 아직도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처절한 생의 근원지에 대한 회귀성이 애잔하여 눈물겹기도 하고 때론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고향에 돌아와 문학의 텃밭을 가꾸어 부족하지만 문화예술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문인의 꿈을 꾸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 바램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지역문우들과 함께 문학회를 창립하여 문학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도 감사하다. 또한 이 지역 청소년문학회가 만들어져 연말에 작품낭송회도 하며 문학의 싹이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일들이 깊게 뿌리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풀잎처럼 마음을 낮춰야 한다. 풀잎은 낮게 누워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이 더 넓게 눈 속에 들어온다.

앞으로 생각이 깊고 심성이 맑은 분들과 사유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갖고 싶다. 그래서 정겨웠던 동심의 맑은 숨소리를 기억하며 귀향의 그 소박한 기쁨을 오래도록 함께 누리고 싶다.



〈詩〉

함께 사는 나무



(시인)

김 춘 만

옛집에 돌아와서 마당을 정리했다.
우거진 잡목을 베어내고 인터로킹블록을 깔았다.

감나무 두 그루 살렸다.
첫 아이 낳던 해 아이와 함께 자라거라
그렇게 심은 것이 25년
베어 낼 수 없었다.

사철나무 한 그루 살렸다.
누님이 심었다 하기도 하고
형님이 심었다 하기도 하고
사, 오십 년 이곳을 지켰으니
너도 함께 살자 했다.

포클레인 기사가 후박나무 앞에 섰다.
아닐세 그 높은 시집 온 아내가
초임 근무지에서 기념으로 심은 것이라네.

모두들
별레 끼는 석류나무는 뽑아내자 했다.
장모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네
신혼 때 보내준 나무다.

아, 저것도 살아 있구나
설악산 계곡에서
물 적신 신문지로 분양해 온 단풍나무
화분에 심었다가 떠나면서 땅에 묻은 것이
어른 팔뚝만하다.

저것들이 둘러앉아 있으니
제법 살만하지 않은가.

▶ 약력

- 고성출생
- 1988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 시집 「산천어 눈빛 닮은 당신」 외 다수
- 한국문인협회회원
-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거주





〈詩〉

어머님과 나눈 얘기

(시인)

최 인 철

햇살이 눈시리게
따사로운 아침
어머니 계신
시골집 사랑방에서
졸수(卒壽)가 넘은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린다

"어머니 손톱이
너무 깨끗해요"
"내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손톱이 두꺼워야
오래 산다는데"

난 얇은데도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단다"
"어머니 연세 96세 넘으셨는데
100세는 되셔야
오래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5년은 더 살아야
오래 사시는 거죠"
엄마가 빙그레 웃으신다 ^ ^

"야! 아범아!
허튼 수작 하지마라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살고 싶다고 모두 오래살면
죽을 사람이 없게"
그렇게 말씀하실것 같았다
언제 찾아도 버선 발로
뛰쳐 나오시는 어머니!
부르고 또 불러보고싶은
사랑스런 그 이름이여!



〈詩〉

원한의 휴전선

고성문화회원

최 형 윤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6.25 동족상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이 많았음에도 끝나지 않은
정전(停戰)으로 생겨난 선(線).

계절 따라 철새들은 자유로이 오가는데 사람들에게겐 하늘과
바다, 산 모두 꽉 막아 놓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엮 갈린 혈육, 서로 만날날 기다리고 있으나 성큼
다가오는 듯 또 멀어져 간 이산의 아픔으로 흘러 보낸 애끓은
60여 정상.

이제

나이 많아 지치고 병들어 걸음걸이 온전치 않은 고향 잃은
우리 부모님 상처난 가슴으로 서글픈 마음으로 실컷 울고 웃고
싶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반도 허리를 갈라놓은

금단의 철책선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각각 2킬로미터 동(東)
에서 서(西)쪽까지 155마일

언제 쫓 사라지려니 원한의 휴전선아 !





〈詩〉

고향(故鄉)가는 길

(시인)

전 경 배

듣기만 해도 서러운 실향 60년
금강산 내리마을 강원도 고성군 내 고향

앞 마당은 동해바다
돌아서면 가슴설래는 푸르고 깊은 산하
그 곳에는 사시사철 산 노루 바닷새가 평화롭고
예쁘지 않은 꽃들은 피지도 못한다네

사랑하는 어머니는
금강산 깊은 골 호랑이 울음소리에
나를 잉태하시고
폭음 쏟아지는 날 홀연히 먼~길 떠나셨네

그날이 오면 말을 타고 달려가리라
 행여 내집에 타인이 살고 있거든
 오순 도순 함께 살자 말하리라

고향이 오고있네 내가 가고있네
 저만치 통일이 오는 길목에 서서
 고향집을 바라보네
 유년시절 내가 서 있네.



한글서예

重到伯陽江上樓
滿樓春色更周流
雲煙三月閑吟罷
消遣鶯盈客裏愁

乙未年九月廿五日
丁巳年九月廿五日
丁巳年九月廿五日

운곡선생시 | 김 교 희 |

하늘이明朗하고大氣가 맑아萬物을育成하는惠
風이和暢하였다우러宇宙의無限大함을보고
금히地上萬物の茂盛한姿態를알피었다

이원설(元雪)은 이 시에서 王의 功業을 찬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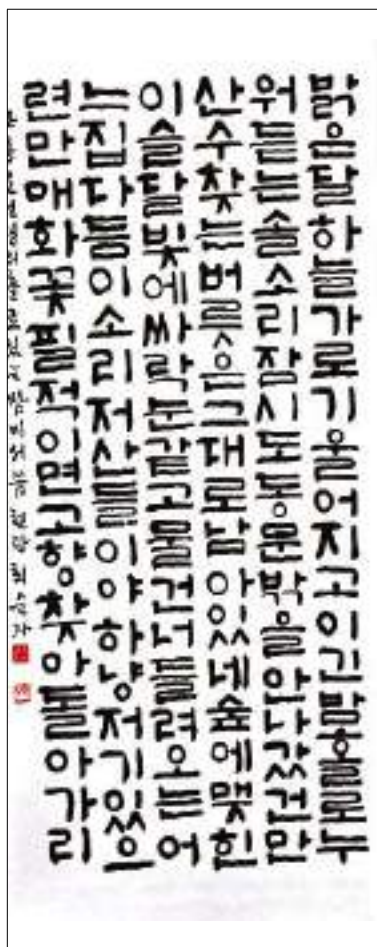
왕희지낙정서 중 | 김 순 덕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한용운 시 명상 중 | 최 봉 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한용운 시 남의침묵 | 강 혁 남 |



한용운시 | 최 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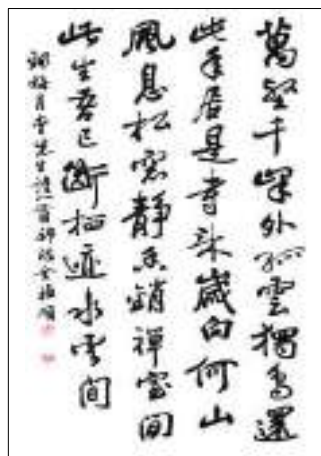


한가히 노닐며 | 한 기 춘 |

한문서예



즉사 | 문 창 래 |



매월당선생시 | 김 복 순 |



한용운선생시 | 심 옥 미 |



윤곡선생 시 | 홍 종 철 |



학명거사에게 | 이 광 성 |



백거이 시 | 황 재 철 |



반야심경 | 황 철 순 |

한국화



폭포풍경 | 김 복 순 |



가을계곡 | 김 정 순 |



묵강의봄 | 박 숙 종 |



산막이호수의여름 | 윤 선 준 |



산유수미울의봄 | 이 경 순 |



오줌싸개 | 최 봉 림 |



삼막호수의소나무 | 이 옥 화 |



해변의아침 | 황 기 춘 |

사군자



만추 | 김 광 철 |

매화 | 박 상 도 |



하일담선 | 심 옥 미 |



매화 | 이 광 성 |

유 화



라벤다 언덕의 꿈 | 조 윤 주 |



환희 | 김 영 미 |



여행스캐취 | 정 순 득 |



아름다운 계절 | 엄 부 현 |



보리밭 | 어미자 |



아빠의계절 | 최향미 |



행복이가득 | 주윤옥 |

사 진



수성의 봄 | 남 영 자 |



고니의 流泳 | 김 남 웅 |



북천 소경 | 홍 의 현 |



가을의 울산바위 | 최 선 호 |



스룻개바위 | 황 병 현 |



금구도의 해변 | 서 동 주 |



마산봉의 봄 | 안 의 봉 |



일출 소경 | 윤 선 준 |



생태(生態) | 장 정 희 |



각자(刻字)



박후고명(博厚高明)

● 높고 두터우며 높고 밝다. ●



김 용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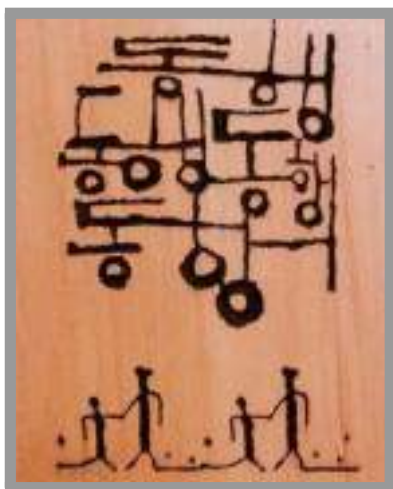


최 선 호



화목건강(和睦健康)

●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자. ●



동행

● 우리함께 가요 ●



김 장 민



최 찬 식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



심심상인(心心相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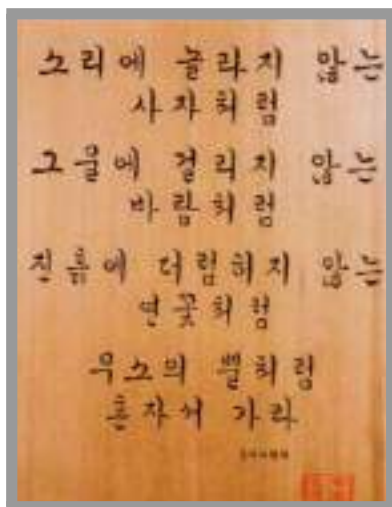
● 새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



김 경 숙



김 인 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최초로성립된 불교경전 ●



예수님 성화

● 예수님의 성화를 표현함 ●



이 은 진



고성문화원 연혁

년 월 일	연 혁 내 용
1983.10.01.	고성군청 별관1층 임대 사무실 설치
1984.01.06.	설립허가490호(문화공보부장관) 대표자: 함병철(초대회장) 이사 : 함병철, 이백규, 김경명, 이귀림, 이복수, 최달규, 함정균, 함형운. 감사 : 김성호, 전정인.
1984.01.06.	사무국장 : 함형운 임명
1985.03.01.	고성군청 별관 2층 증축으로 사무실 이전
1985.11.20.	고성문화원 착공
1986.12.31.	고성문화의집 준공
1987.01.05.	고성문화의집 1층으로 사무실 이전
1988.01.06.	문화원장 : 함병철 유임
1988.12.20.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2.06.22.	합희조 문화원장 취임(1996.6.21.까지)
1994.07.05.	부원장 : 이병찬, 심규섭(취임)
1994.08.09.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인 설립인가
1996.06.28.	임원취임 승인(원장 합희조, 부원장 권오진 이병찬) 유임이사 : 이성식, 신임이사 : 김대현, 윤용수, 권오훈, 김영태, 김성호, 조정현(임기 2000.06.24.까지)

년 월 일	연	혁	내	용
1997.12.20.			영상음악 감상실 개설	
1998.05.29.			금오현악 4중주 초청콘서트	
1998.06.20.			문화원장 함희조 사임, 권오진 부원장 직무대리 발령	
1998.07.12.			함희조 문화원장 사임	
1998.07.13.			이병찬 문화원장 취임(7.20이취임식) 2000.6.19.까지	
2002.01.01.			사무국장 남병욱 임명(고성문화원 공개채용)	
2002.03.02.			간사 최윤정 임명	
2003.11.22.			문화원 사무실 보수공사 및 모빌렉 설치공사	
2004.04.01.			고성문화원 정관변경(제14조 임기 제2항.)	
2004.06.29.			제6대 황연인 문화원장 취임	
2004.06.29.			감사 : 최선희, 박덕조	
2006.07.01.			사무국장 박명재 임명	
2008.06.29.			제7대 황연인 문화원장 유임	
2009.02.25.			이사 : 김용경, 한창영, 이학봉, 김철수, 황병구	
2010.02.24.			감사 : 최선희, 윤금열	
2012.07.29.			제8대 이진영 문화원장 취임	
			(이사: 부원장 황병구외18명)감사:황재철,황광률	



고성문화원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고 문	이 병 찬	죽왕면 오호리 179-10	010-8950-3897
”	황 연 인	간성읍 신안리 111 삼익@ 105-903	010-3355-2414
원 장	이 진 영	간성읍 신안 2리	010-7240-2224
부원장	황 병 구	간성읍 간성로 54-2	010-6384-1493
”	홍 종 철	거진읍 거진 8리	010-5379-2720
이 사	김 낙 곤	거진읍 거진 11리 2반	010-8074-2370
”	김 진 호	현내면 죽정 1리 2반	010-3364-6215
”	김 철 수	토성면 인흥리 429번지	010-5115-1452
”	남 성 연	간성읍 신안 6리 3반	010-5368-0062
”	남 영 자	간성읍 상리	010-8897-1604
”	윤 영 락	거진읍 동진@ B동 6004	010-5366-3200
”	문 창 례	죽왕면 오호 4길 10	010-7371-0433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송 윤 석	간성읍 상 1리	010-4710-2563
〃	윤 금 열	간성읍 봉호리	010-5376-2293
〃	이 학 봉	현내면 대진 2리 9반	017-372-0527
〃	조 정 현	토성면 천진리 61 2/1	010-8866-2086
〃	한 선 제	죽왕면 삼포리 239-36	010-5363-0023
〃	전 연 표	간성읍 신안리	010-5365-4433
〃	한 창 영	간성읍 수성로 126 고성석미모닝 102-1102호	010-5373-2156
〃	함 상 옥	간성읍 신안리 314-1	010-5274-2025
〃	홍 순 흥	간성읍 간성로 89번길 7	010-2029-2126
〃	전 순 표	간성읍 상 2/4	010-3798-2775
〃	김 정 순	거진읍 거진 11리 2반	010-5589-2982
〃	장 정 희	간성읍 상리 동해@ 306호	010-5364-5193
감사	황 광 울	간성읍 상1리 4반	010-2023-2091
〃	황 재 철	간성읍 금수리	017-271-3300



고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며 지역문화교류, 사회 교육 등 군민의 문화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취지에 뜻을 갖이하는 귀하를 고성문화원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문화원이 하는 일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 문화원의 회원이 되시면

1. 정기 간행물 “고성문화” 와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2.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 받게 됩니다.

-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자료(도서, 비디오, CD등)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회원자격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수 있으며,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 문화원 회원이 되는 자격 및 참여방법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셔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회원자격 : 고성군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성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자로서 본원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찬동하는자.
 2. 회 비 : 년회비 : 30,000원(신입회원 : 50,000원)
 3. 납입계좌 : 농협 247-01-305242(예금주 : 고성문화원)
 4. 문의전화 : TEL : 033)681-2922 FAX : 033)681-2928
-

高城文化 제6호 (2015年)

印刷日 : 2015. 12. 20.

發行日 : 2015. 12. 20.

發行人 : 李鎮英(高城文化院長)

編輯人 : 崔善鎬, 김장민

文化院 電話 : 033)681 - 2922

팩스 : 033)681 - 2922

印刷 : 건영인쇄소

電話 : 033)681-1977

〈非賣品〉 이 冊은 高城郡費 支援으로 發行되었음.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의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창의성 개발, 우리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